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00호

Thursday, October 9 2025 A

연방공무원 사이에서 “셋다운은 민주당 때문” 주장

연방공무원간 ‘해치법’ 위반 논란 가중
일부 부처 ‘좌파 때문’이라며 배너 내걸어

정치권이 셋다운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여러 부처가 이번 셋다운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비난을 이어가자 ‘행정부 부처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법’(해치법 Hatch Act) 위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39년 제정되고 1993년 개정된 이 법률은 연방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 법률은 애초 연방 공무원들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비정파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중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을 금지하지만, 비정파적 선거나 특정 활동은 허용한다. 셋다운 직후 연방보

심주택개발부(HUD) 건물 외벽에는 “연방의회 내 급진 좌파 때문에 셋다운이 됐다. HUD는 도움이 필요한 미국을 돕기 위해 동원가능한 자원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배너가 걸렸다.

연방법무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셋다운시켰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셋다운 직전 산하 공무원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전혀 무관한 정책을 요구하며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활동금지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위반시 해임, 5년 동안 연방공직 임용 금지, 최대 1천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셋다운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답변이 47%로, 민주당(30%), 확실하지 않음(23%)보다 많았다.

김윤미 기자

트럼프 1박 방한 유력... “한·중 정상 만났뒤 출국”

APEC 본회의 시작 전 귀국 전망
미·중 회담용 ‘원포인트 일정’ 우려
정부 “막판까지 관련 일정 조율”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가 미·중 정상회담 무대로만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 뒤, 27~29일 일본을 방문해 새로 선출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후 2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해 경주로 이동,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다. 이어 이튿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후쯤 출국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외교적 접점을 마련한 결과가 ‘경주 회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검토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APEC 정상회의의 본행사(오는 31일~11월 1일) 전에 마무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APEC 참석이 아닌 시 주석과의 회담을 위한 ‘원포인트 일정’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 일정이 무박 혹은 1박2일로 확정된다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미국 대통령이 한·일을 연달아 방문할 때는 통상 일정의 균형을 고려하지만, 일본에서는 2박3일 머무르는 반면, 한국에서는 APEC이 열리는 데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동맹 관계의 균형이 흔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 증진이 라는 APEC의 본래 취지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을 조정할 협상 계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측이 APEC 방한 일정을 예상보다 짧게 잡은 것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올해 APEC은 게임-탄핵 국면 이후 한국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정부는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는 상징적 외교 무대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경제협력 등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 불참은 이런 구상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시 주석에 대해서도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한을 추진했지만 이 구상도 현재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은 “국빈 방한이라면 이미 일정이 확정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꼭 서울에서만 국빈 일정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셋다운 여파, 공항 ‘지연·결항’ 잇따라

여행객들 불편에 ‘한숨’
워싱턴 38편 늘장 출발

연방정부의 셋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8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이 잇따라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8일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비행기 운항은 지속되지만 관세사들의 업무가 더욱 힘들어지는 관계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항공청(FAA)은 하루가 다르게 전국의 항공교통관제센터에서 항공기 및 인력이 부족하다고 접수되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Flight Aware에 따르면, 7일 워싱턴을 비롯 전국에서 국제·국내선 3600편 이상이 지연되었으며, 그중 70편은 완전 취소되었다.

또 8일 아침 기준으로는 국제·국내선 460편이 지연되었는데, 이 중 25편은 취소를 알렸다.



같은 시각 워싱턴 지역에서는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취소 항공편은 없고 18편이 지연됐으며, 달레스 국제공항은 20편이 지연됐고 취소 항공편은 없다.

FAA는 8일 이후 워싱턴은 물론 뉴욕,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의 주요 공항에서 지상 운항에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연방교통부(DOT)의 셋다운 비상 계획에 의하면 1만1000명 이상의 연방항공청 직원들이 일시 해고될 예정인데, 이는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된다.

김성환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우상호 '용산·여당 온도차' 발언... 여당 "무슨 의미냐" 갑론을박

우 "대통령 생각 전달할 때 당 곤혹" 박수현 "정청래, 용산과 매일 소통"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화두처럼 던진 "(여당과 대통령실) 온도차"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여러 해석론을 낳았다.

우 수석은 추석 당일인 지난 6일 KBS 라디오가 방송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정무수석으로서 힘든 점"을 묻자 "가끔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가 날 때가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의 생각을 잘 전달했을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결정과 관련해 "예를 들어 개혁 법안이면 '이러이러한 점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걸 처리가 될까요?' 같은 법률 관련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신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사전 녹음된 방송"이라며 "최근 현안과 관련한 얘기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에선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독주를 떠올리는 의원이 많았다.

원내 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대통령 일정 중 당이 사회적 이슈를 지나치게 야기할 일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통령실에서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갑작스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통에 이 대통령의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지난달 23~26일) 등이 주목받지 못한 것 등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또 다른 당 지도부 인사는 "집작컨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속도는 정부의 신중론을 압도했다.

정부는 김민석 총리가 총괄하는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등 남은 쟁점들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고 버르고 있다.

우 수석은 같은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대통령은 개혁가이면서 실용주의"라며 "뛰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불편한 심사를 감추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이스북에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카톡방에 서나 하라"고 썼다. 또 다른 법사위원은 "당은 거침없이 해야 개혁의 동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입장을 밝힐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필요하면 하루 2~3차례씩 빠짐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도 차'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김나한 기자

이민자 구금 중 사망자 '증가'... 대책마련 시급

워싱턴을 비롯 전국에 구금된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밀로 인한 구금 중 사망자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16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센터에서 사망했다.

동시에 구금된 이민자 수는 8월까지 6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구금 시설 규모는 사망자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24년에는 평균 3만5000명이 구금되어 13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구금자 1만명당 3.7명에 해당한다. 올해는 구금자 수가 6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9월까지 16명이 사망해 1만명당 2.7명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



한인 300여 명이 무더기 구금되어 있던 구금 시설 전경.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구금 센터 내의 사 부족과 진료 지연 또한 과밀 못지않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금자 중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간단한 질환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위험해진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 달 전에는 현대차-LG 공장에 근무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ICE에 의해 체포돼 조지아주 포크스틴 구금 시설에 갇혀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과 의료 문제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ICE는 이같은 문제점 해결의 일환으로 3만4000개의 추가 구금 병상을 포함해 시설 확충 재정 20억 달러를 추가로 연방 정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환 기자

할인으로 버티던 현대차 앞에 EV6보다 싼 테슬라 등장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를 새로 출시하며 세액공제가 끝난 미국 전기차 시장에 가격 경쟁의 불을 붙였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옵션을 내세웠던 현대차-기아로선 테슬라와 가격을 두고 겨뤄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대미 수출관세(25%)에 이은 새로운 난관에 직면한 셈이다.

테슬라는 7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와 전기세단 모델3의 보급형인 '스탠더드' 트림을 공개했다. 모델Y 스탠더드의 현지 판매가는 3만9990달러로 기존 모델Y 롱레인지 후륜구동(RWD) 모델(4만4990달러)보다 5000달러 싸다. 모델Y 스탠더드는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516km로 기존 575km(EPA 기준)보다 줄었다.

전장·전고 등 외형과 내부 공간은 그대로지만 실내의 옵션 수준이 낮아졌다. 가죽 시트는 직물로 변경됐고 좌석통풍 기능도 빠졌다. 기본으로 장착되는 휠 역시 19인치에서 18인치로 작아졌다. 2열 터치스크린도 빠졌고 스티어링 휠과 사

이드미러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한다. 모두 원가 절감을 위한 조치다. 모델3 스탠

더드도 판매가 3만6990달러로 기존(프리미엄)보다 5500달러 저렴하다.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은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략상품에 가깝다.

3만달러대 테슬라 전기차는 현대차-기아에 적잖은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차량 가격이 역전됐다. 기아 EV6(미국 판매가 4만2900달러)는 그간 모델Y보다 저렴했지만, 이제 보급형 모델Y보다는 비싸졌다. 이에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최대 9800달러 가격 할인하는 등 새로운 방침을 내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문위원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마진을 줄이는 버티기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은 또 정 회장이 농구 팬이며, 직원들과 회사후 노래방에서 퀸의 노래 '라디오가가'를 부르는 등 친화적인 성격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이 지난해 6월 브라이언 켈프 조지아 주지사의 방한 당시 제주-서울 이동에 자신의 전용기를 빌려준 일화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대

차그룹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성 기자



토요타 튠드라 40만대 리콜

2022-2025년 생산 차량 대상

토요타가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충돌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튠드라 및 튠드라 하이브리드 차량 40만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7일 토요타 자동차 가운데 2022-2025년형

튜드라 및 튠드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2023-2025년형 세콰이어 하이브리드가 후방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리콜 대상 차량의 카메라 디스플레이 오류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딜러에서 무료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리도 해결 예정이다.

토요타 측은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11월16일에 발송할 계획에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번호는 25TB10과 25TA10이며, 기타 문의는 토요타 고객센터(1-800-331-4331)로 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주는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안전 핫라인(1-888-327-4236)에 연락하거나 www.nhtsa.gov를 방문할 수도 있다.

김성환 기자

워싱턴 날씨 (°F)

10일(금)	67-51	13일(월)	63-55
11일(토)	69-58	14일(화)	71-54
12일(일)	63-53	15일(수)	74-49

10월 9일(목) 66-4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특점 알링턴 콘도 \$2,100 차고 1, 방 1, 화 1	RENT 특점 매나세스 파크시티 \$3,000 차고 2, 방 3, 화 2.2	SALE 특점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Coming Soon 차고 2, 방 3, 화 3½
---	--	---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커피 & 샌드위치샵

- 위치: 알링턴 지역
- 영업일: 주 7일
- 매출: 약 \$20,000
- 렌트: \$11,000/월
- 매매가: \$180,000

안정적인 고객층을 가진 소형 커피 & 샌드위치 전문점. 빠른 인수 가능!

버지니아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 규모: 120에이커 (약 48만㎡)
- 시설: 테이스팅룸, 코티지, 창고, 와인 공장, 연못, 넓은 주차장 (104대 수용)
-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 매매가: \$7,500,000

자연 경관이 뛰어난 프리미엄 와이너리. 관광·이벤트 운영 병행 가능.

투자용 상가 건물

-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천!

냉동·냉장 창고 매물

- 위치: 메릴랜드 볼티모어
- 연적: 16,000 SF
- 설비: 냉동·냉장고 완비
- 매매가: \$1,500,000

유통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보까지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 전문**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이름 / 영문 이름 승경호 (K Soung)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 부동산 컨설턴트
거주/활동 지역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 메릴랜드 메트로 지역
언어 한국어, 영어
브로커리지 미국 Realty One Group Capital 미전국 8위 기업
전문 분야

-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리테일, 창고/공장 임대·매매
- 주거용 부동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콘도 매매·임대
- 국제 투자자 지원 한국 기업/개인 미국 진출 부동산 컨설팅
- M&A (Wharton School) · 사업 확장 관련 부동산 자문

상업용 부동산 경험 · 멀티레스토랑 운영 공간 확보, 물류·유통 창고 임대 및 계약 진행
주거용 부동산 경험 · 구매자·판매자·투자자 대상 전략 제공
국제/투자 경험 · 한국 스타트업 및 IT,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지원
· SBA, NNN, TI 등 상업용 부동산 금융·계약 컨설팅
포럼/세미나 참여 · 'Innovation Highways: Strategies for Successful Korea-US Entrepreneurship' 패널
활동 포인트

- American Korean Business Friendship Forum (AKBFF) - 이사
- 한국 기업/개인 대상 미국 시장 확장 및 부동산 전략 자문 가능
-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거래 경험 풍부
- 워싱턴 DC, 메트로 네트워크 활용 가능

연재, 어디서든 만나는 리얼리티 전문가입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 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 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워싱턴DC 사형제 부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사건 증거와 사실이 사형 적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DC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에서 관광객이 링컨 기념관을 보러 왔다가 결국 살해당한다니,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발생한다면, 범인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팜 본디 법무부 장관은 미국 전역에서 다시 사형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감형한 사형수들도 보안이 가장 강화된 교도소로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

제 워싱턴DC에 사형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지난 4주 동안 살인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12일 만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직원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나를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말한다"면서 "이제 그들은 범죄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워싱턴DC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주 방위군 투입 이후 범죄 감소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이동량과 식당 이용률 등 정상적인 도시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과 LA에 이어 댈러스에도 군 병력을 배치한 트럼프는 포틀랜드와 시카고를 다음 대상으로 삼았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중심가 새벽 칼부림 사건 발생

남성 한명 부상 입원 경찰, 가해자 추적중

경찰은 8일 새벽 워싱턴 DC 다운타운에서 남성 1명이 칼에 찔린 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메트로 워싱턴 경찰국은 이날 오전 2시30분경 H 스트리트에서 칼에 찔린 남자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곳은 노스이스트 지역이다.



현장에서 칼에 찔려 부상을 입은 남성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칼부림 사건은 H&치킨식당 내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두 집단이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언쟁 와중에 두 사람이 식당 밖으로 나가서 싸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싸움을 벌인 두 집단 모두가 도망쳐 없었고, 단지 부상자만 남아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KCBMC 특별 세미나 "일과 영성의 조화" 개최

KCBMC 동부연합회(회장 김형주)는 오늘 오후 6시, 버지니아 맥클린 소재 옴니호텔 빌딩 세미나실에서 '일과 영성(Work & Spirituality)'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KCBMC 페어팩스-Y 지회(회장 실비아 손)가 주관하며, 유

원식 전 미주기아대책 회장이 강사로 초청된다. 유 회장은 한국기아대책 회장(2015~2024), 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등을 역임하며 50여 개국에서 구호와 선교 사역을 펼쳐왔다. 그는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닌 하나

님의 부르심을 실현하는 사랑"이라며, 신과 일의 통합을 강조해 왔다.

실비아 손 회장은 "기업가이자 선교 지도자인 유 회장의 이번 강연이 비즈니스와 영성의 균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결혼해도 금융계좌 '따로'

부부공동계좌 27년전 85%에서 2023년 현재 77%로 줄어



부부가 은행을 포함한 주식, 부동산 투자 등 모든 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방센서스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부부 공동 금융계좌를 보유한 비율이 85%였으나 2023년에는 77%로 감소했다.

특히, 은행 공동 계좌의 경우 1996년 53%였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40%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별도 계좌와 공동 계좌를 모두 가진 비율은 9%에서 17%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미 재정적으로 독립 기초를 갖춘 성인 남녀가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다. 결혼을 한 후 굳이 공동계좌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이다.

1996년 미국인 남녀 초혼 중간연령은 각각 27.1세, 24.8세였으나 2023년에는 28.4세, 30.2세로 높아졌다.

만혼 풍조와는 상관없이 기혼자 중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각자의 금융계좌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계좌 비율이 높았다.

결혼 4~8년차 부부는 68%, 9~13년차 부부는 79%가 공동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윤미 기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를 자유롭게 분리해 저장하는 금속 유기 골격체(MOFs)를 연구한 기타가와 스무 교토대 특별교수와 리처드 롭슨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대 명예교수, 오마르 야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출처:중앙일보

상원, 임시예산안 처리 또 실패...트럼프 "보건정책 논의 의향"

연방정부의 섯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6일 또 불발됐다.

연방의회는 섯다운 옛새재인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

의한 CR을 상정·표결했으나,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해 2주차에 들어선 섯다운 사태의 종식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있게 됐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CR 처리 불발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사회기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섯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년 이상 경력
주택 매매 - 렌트 전문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LA카운티 '비상사태' 선포 추진

이민단속 대응 긴급안전 통과
주민 불안·사업장 폐쇄 확산
퇴거 유예·긴급 지원 등 검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으로 주민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자, '이민단속 관련 지역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긴급안건을 통과시켜, 카운티 직원들에게 비상사태 선포문 초안을 마련해 다음 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표시 없는 차량을 타고 나타나 영장 없이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 이민자 사회가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일터, 학교, 교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등 일상 전반이 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법률고문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일시적 퇴거 유예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재산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세입자는 이후 밀린 임대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상사태가 공식 선포되더라도 퇴거 유예 조치가 자동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표결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호바스 수퍼바이저 측은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는 카운티가 계약, 조달, 인력 채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과 공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카운티 최고경영자(CEO) 페시아 대변포트는 "피해 주민과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검토해 다음 주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 공격 2주기 추모행사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2주기를 맞아, 7일 뉴욕시 맨해튼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가자지구 인질들을 위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

천정부지로 오른 차량 견인비, 사기까지 기승

사고 현장 출몰 보험사 사칭
차 끌고 가 고객의 비용 청구
공식 견인료도 195달러 올라

LA 주민들이 비싼 차량 견인 비용으로 인해 허리가 휘 지경이다. 여기에 최근 견인 사기꾼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견인 사기는 경찰이나 보험사 소속인 것처럼 사고 현장에 나타나 차량을 끌고간 뒤, 운전자에게 거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리ndon비치 주민 니코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최근 폭스11과의 인터뷰에서 "보험사에서 약속한 날보다 하루 먼저 나타난 견인 기사가 '보험 네트워크 소속'이라고 속이고 차량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은



LA 한인타운 윌서 블러버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약속된 정비소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후 사기꾼으로부터 5500달러가 넘는 보관료 청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밴나이스의 한 업체가 140

여 대의 차량을 불법 견인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견인 역시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LA경찰국(LAPD)과 경찰위원회가

승인한 공식 견인소(OPG)의 요율(신용카드 결제 기준)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올랐다. 2023년 156달러이던 기본 견인비는 올해 195달러가 됐다. 2년 사이 무려 25%나 오른 것이다. 추가 30분 요금도 2023년 78달러에서 올해는 96달러로 인상됐다. 보관료 역시 2023년 하루 48달러이던 것이 올해는 60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차량 회수 수수료 115달러와 10%의 시 주차세가 더해지면, 차량을 하루만 맡겨도 수백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영진(57·LA)씨는 "급히 한국에 다녀오느라 미처 차를 빼오지 못해 5일간 보관소에 있었는데 비용이 1000달러 가까이 나왔다"며 견인 비용이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거주 의회는 견인비용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새 법안인 'AB 987'은 휴일·야간 추가 요금이나 '게이트

요금' 등 편법 수수료를 금지하고, 공공기관 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견인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과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도 견인 사기는 처벌이 가능하다. 거주 차량법은 무단 견인 시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민사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한 요금의 4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LA시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무단 견인을 2.5마일 이내로 제한하고, 24시간 안에 차량을 찾을 경우 하루치 보관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견인업체는 차량을 점유한 뒤 30분 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법 견인 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한길 기자

동물 살 파먹는 구더기, 멕시코 '나사벌레' 비상

멕시코에서 동물의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 애벌레(New World Screwworm: NWS) 가축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6일(현지시간) 멕시코 농축산물안전청(SENASICA)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접경지인 누에보레온주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신세계 나사벌레'라고 불리는 NWS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제 덕분에 벌레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함께 운송된 다른 84마리의 가축은 영향을 받



'기생파리' 애벌레. [질병통제예방센터]

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당국도 현재 동물 수송 72시간 전에 구충제 이버멕틴을 투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

홈페이지에 따르면 NWS는 과거 미국 남부와 멕시코, 카리브해 섬나라, 남미 아르헨티나 지역까지 출몰했다. 가축이나 반려동물, 야생동물 또는 사람의 상처에 달라붙어 알을 낳으면 부화한 구더기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처럼 숙주를 파고들어 '나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미국 정부는 멕시코 등과 협력해 1980년대에 공식적으로 이 해충의 박멸을 공표했다. 홍준희 기자

AI가 쓴 보고서 '오류투성이'

호주 정부가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받은 용역 보고서에 인공지능(AI)이 지어낸 가짜 정보가 다수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법원 판결문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는 호주 정부에게 의뢰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오픈AI의 GPT-4o를 사용했다. 호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일자리 시스템 문제 관련 평가 보고서였다. 지난 7월 딜로이트가 작성한 보고서

가 공개되자 학계와 현지 매체들은 다수의 오류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명시된 호주 시드니대 스웨덴 룬드대 교수들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 보고서가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참고문헌 141개 중 14개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본문상에도 인용 문구 등이 조작됐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AI가 만들어 내는 환각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철용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LA총영사관, 능력업무 개선 의욕 있나

영사 2명 등 인력부족 탓만
2022년 이후 증원요구 안해
민원인 서비스 불만 높아져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미주 지역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안)의 민원 업무 효율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미주 최대 한인 사회가 형성된 LA 지역 특성상 그동안 민원 업무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LA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외교부 등은 인력 확충에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A총영사관 민원담당 영사 3명(주재관 및 직무파견 포함)이 직접 심사한 여권 및 공증 서류는 약 9만 건(8만7419건)에 이른다. 영사 1명이 하루 평균 처리하는 업무는 무려 100건 이상이다. 항

목별로 보면 ▶여권 약 30건 ▶사증(비자) 약 25~30건 ▶공증(영사확인) 약 90건 ▶국적약 20건에 달했다.

현재 총영사관 민원 담당 영사는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태다. 영사 1명당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워낙 많아 행정 업무가 늘어지다 보니, 이는 LA총영사관 민원 업무 서비스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업무 폭증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인력 확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한인 인구 다수 거주 지역 등을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경우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재외동포재단 파견 영사 1명이 귀임한 후 총영사관 공무원 정원은 21명이 유지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영사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는 인력 증원이나 직제 확대 관련 건의

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본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대해 박철 언론담당 영사는 “장관 업무보고는 주로 외교 현안 중심으로 이뤄지며, 인력 문제는 외교부 인사과가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력 소요 조사를 거의 매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인력난은 순회 영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경준 기자

렌트·배달앱 환불 등...소비자 보호법 시행

뉴섬, 권리 강화 법안 서명

개빈 뉴섬(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입자와 소비자 권리는 강화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와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각종 생활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세입자 권리 강화, 불필요한 판매행위 금지,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세입자 권리 강화

▶ 주거 기본설비 의무화 (AB 628)

2026년 1월 1일부터 건물주는 세입자 렌트 계약 시 반드시 작동 가능한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등)과 냉장고를 갖춰야 하며, 세입자는 본인 냉장고를 반입할 수도 있다. 주방과 냉장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만 거주 가능한 렌트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시니어 세입자 퇴거 유예 (AB 246)

시니어 세입자가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이나 지급액 감소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 세입자가 연금 문제를 증빙하면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퇴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법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다국어 퇴거 안내문 제공 (AB 863)

2027년부터 거주 사법위원회의 강



제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배달앱 환불 절차 강화 (AB 578)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배달 플랫폼은 전액 환불 또는 크레딧 중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처럼 크레딧만 제공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 자동차 판매 사기 방지 (SB 766)

자동차 딜러는 차량 상태, 이차용, 옵션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안내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가 계약금·추가 옵션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서비스나 중복 보증 강매도 금지된다.

▶ 주차위반 벌금 제도 개선 (AB 1299)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검토를 진행하고,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 전화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AB 1303)

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Lifeline) 프로그램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연방기관이나 이민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

저소득층 이민자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김형재 기자

프리웨이에 낙서 한인 기소 워싱턴주 타코마서 체포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에서 일명 ‘태거(Tagger·공공장소에 낙서하는 사람)’로 활동하던 40대 한인 남성이 도심 곳곳에 수십 차례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매체 코모뉴스에 따르면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30일 기소된 토니 김 임(46) 씨에게 1급 및 3급 기물 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프리웨이 방음벽 등에 반복적으로 낙서를 한 혐의로 워싱턴주순찰대(WSP)에 체포된 바 있다.

WSP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XCIT’

라는 문구와 꽃 문양 등을 프리웨이와 시내 벽면에 다수 남겼다. 워싱턴주 교통국(WSDOT)은 임씨가 남긴 낙서를 제거하는 데 총 3만2217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임씨는 검은색 복장에 스프레이, 장갑, 마스크 등 낙서 도구를 갖춘 상태였다.

임씨는 최근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글을 올려 “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영재 기자

경기기후위성 1호기, 11월 발사

경기도는 다음 달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위성을 발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 장비를 통해 경기지역 도심과 생태계의 변화를 탐지하는 광학위성이다.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게 된다. 구체적인 발사 일

정은 최종 조율 중인데 다음 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기후위성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지난 7월 위성 개발을 완료하고 9월 탑재체 항공시험 등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 융자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구매(미역소) 등
워싱턴주(노래방)
300m
40
미리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뉴타운

일본 새 총리 다카이치 ... “야스쿠니 참배 보류 방침”

(요미우리)

이달 하순 국회서 총리 선출 예정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 재정’ 지지

지난 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사진) 전 경제안보장관당선이 선출됐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과의 결선투표에서 185대 156의 큰 표차로 승리했다. 그는 이달 하순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민심을 반영한 자민당 당원·당우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요시다 도오루(吉田徹) 도시샤대 교수는 “최근의 성공 모델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후계자로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라고 승인을 분석했다.

한국에선 아베 전 총리의 보수주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본에선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앞선다. 또 현실적인 외교정책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1년 뒤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나, 이후에는 참배를 자제하며 한국·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의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관련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는 “(총리가



되더라도) 평소대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에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요시다 교수는 “다카이치 총재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취임 전 우익 강경 발언으로 유명했던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한 뒤에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온건 중도의 길을 걸었다. 요시다 교수는 “다카이치 총재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고, 일·미·한 협력 구도를 중시하는 등 외교에서는 안정적인 현실 노선을 취하고, 보수층에 대한 어필은 국내 정책에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70) 전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아베 정권(2019년~)부터 기시다 정권(~2021년)까지 외무상을 지낸 인물이다. 만약 그가 다시 외무상으로 복귀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연합여당인 공명당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공명당의 지지 기반인 참가학회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깊은데, 자민당으로서 공명당의 연정 이탈을 막기 위해 일정부담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다카이치 총재가 이달 17~19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열리는 추계 예대제 참배를 보류할 방

침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이른바 ‘적극 재정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재무성과는 결이 달라, 그간 SNS 등에서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를 지지한 아소 다로(麻生太郎·85) 전 총리는 제2차 아베 정부에서 재무상을 지낸 대표적인 재정건축파다.

다카이치는 아소 추천으로 그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72)를 자민당 간사장에 기용했다. 스즈키 간사장 역시 아소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재무상을 맡았던 인물로, 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

요미우리신문 특파원

물리12 화학9 생리의학6 문학2 평화2 ... 노벨상 강국 일본

기타가와 ‘금속·유기골격체’ 화학상
사막 공기 중에서 식수 모으는 기술
생리의학 사카구치 이어 올 두 번째
일본, 과학 분야서만 27번째 수상

일본이 올해 두 번째 노벨상을 거머쥐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를 자유롭게 분리해 저장하는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연구한 기타가와 스스무(74) 교토대 특별교수와 리처드 롭슨(88·영국) 호주 멜버른대 명예교수, 오마르 야기(60·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MOF는 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m) 크기의 미세 구멍이 뚫려 있는 신소재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 저장, 물 흡착 등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사막에



일본의 30번째·31번째 노벨상 수상자인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좌교수(왼쪽)와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

서 물 분자를 포집해 식수를 얻거나, 약물을 체내에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전달체를 만들기도 한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개발한 금속·유기 골격체는 분자가 드나들 수 있는 큰 빈 공간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분자 구조를 구현했다”며 “마치 ‘헤르미온느의 핸드백’처럼



일본의 30번째·31번째 노벨상 수상자인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좌교수(왼쪽)와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

수만 가지의 골격체를 설계해 화학적 혁신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주상훈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MOF는 1g당 표면적이 수천㎡에 달하는 물질로, 기후·에너지 문제 해결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 부족이 심한 지역에서는 공기 중 수분을 흡착해 식수로 전환할 수 있고,



리처드 롭슨 오마르 야기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가와 교수는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오랜 연구를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6월에 면역학자 사카구치 시몬(74) 오사카대 석좌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은 연이은 수상 소식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 저력을 자랑하듯 지금까지 생리학·의학 분야에서만 6명, 화학 분야 9명, 물리학 12명 등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문학 분야에서도 저력을 보여왔다.

『설국』의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1968년)와 『개인적 체험』을 쓴 오에 겐자부로(1994년)가 문학상을 수상하며 차기 수상자 탄생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평화상은 1974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에 입각한 외교로 처음 받은 이후 지난해 원폭 피해자 단체인 일본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 히단쿄)가 두 번째로 수상했다.

전후인 1949년 일본에서 첫 노벨수상자(유카와 히데키·물리학상)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76년 사이에 약 2년에 한 번꼴로 수상자를 배출한 셈이다.

야기 교수와 MOF를 공동 연구한 경험이 있는 김자현 숭실대 화학과 교수는 일본의 잇따른 노벨상 수상에 대해 “실패를 감수하며 기초과학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도쿄=김현희 특파원, 어환희 기자

미 국방차관보 후보 “중국 억제 위해 ... 한국 분담동맹돼야”

인·태 담당 한국계 존노 청문회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노(사진)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 인태 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꼽으며 한국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태

지역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burden-sharing)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주로 한·미 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 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

다”며 “모든 지역의 위협에 대해 한반도에서 미군 인원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지휘부 및 국방부 군 지휘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계 인노 지명자는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다.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Healths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므로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OCT. 9TH - OCT. 16TH, 2025

BIG SIZE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 SIZE/LB

~~REG. \$29.99~~

\$15.99



PURPLE



GREY



STEAMBOY Carbon Mat
스팀보이 카본매트
STCM22S/TWIN
(39 X 75 INCH)

LIMIT 2

~~REG. \$199.99~~

\$99.99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미 철강관세 앞친데 EU 50% 폭탄 덮친다

EU 무관세쿼터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물량 관세 25%→50% 예고
한국 작년수출 6.4조, 미국보다 커
한·미협상 교착, 철강 직격탄 우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철강 관세 장벽을
대폭 높인다. 무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
산 철강 물량을 크게 줄이고, 초과분
에는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 관세를
부과한다. 한·미 관세 협상 역시 대미
3500억 달러(약 490조원) 투자를 둘러

싼 이견 탓에 멈춰서 있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지친 한국 철강업
계에는 '앞친데 겹친 격'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
(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저물관세할당(TRQ)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
상담당 집행위원은 "새로운 무역 방어
조치는 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적 장치"
라고 밝혔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또는
0%)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
은 세율을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제도

다. 수입은 허용하면서 시장 충격을 완
화하는 보호무역 수단이다. EU의 새
TRQ 제도에 따르면 기존 연 3053만t
이던 무관세 수입 쿼터(할당량)가 1830
만t으로 47% 축소된다. 초과 물량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은 관세
가 부과된다. 쿼터 산정 기준은 공급 과
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의 수
입량이다.

또 모든 철강 제품에 '조강국 증빙
의무'가 신설된다. 최종 가공지가 아닌
실제 철강 생산국을 명시해야 낮은 세
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6월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전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기 시행될 가능
성도 있다.

이번 TRQ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
가드를 강화한 형태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상 한시 조치인 세이프가
드와 달리 장기 운영이 가능한 '관세 제
도'로 못 박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
도가 크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
수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트리거'
가 돼 EU가 유사한 조치를 취한 첫 사
례로, 다른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따라

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엔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미국에 이어 EU마저도 고율 관세를 예
고하면서, 수출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국의 EU 철강 수출(무협 분류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4000억원) 규
모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을 앞선다.

김원 김효성 기자

용산, 오늘 3실장+α 통상회의... 미국의 '관세 답장' 논의한다

9일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주
재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통상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
석하는 '3실장+α' 통상회의가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예
정일(29일)을 20일 앞둔 시점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7월
31일) 직전인 지난 7월 25일에도 대통
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
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 '3실장
+α' 회의를 열어 협상 전략을 최종 점
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4일 미국 뉴욕에
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가 이
뤄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
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 일환으로 논의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핵심 쟁
점인 직접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투
자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까진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3실장+α' 회의엔 구
부총리도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지난달 정

3실장·구윤철·김정관 등 참석 예정
7월 협상 타결 전 회의 때와 같아
김정관, MOU 수정안 피드백 받은 듯
고위관계자 "논의할 만한 거리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가 미국 측에 보낸 대미 투자펀드 양
해각서(MOU) 수정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정한 피드백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
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10월 2일자
1·3면)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



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는 8일 통화에서 "우리가 미국의 제안
에 대해 '그대로는 할 수 없다'는 대안
을 보냈고, 그 대안에 대한 얘기가 진행

되고 있다"며 "아직은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할 만한
거리가 있다"며 향후 협상 진전 가능
성을 내비쳤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한국 정부가
대미 직접투자 확대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한·미 통하스와프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감내 가능성 ▶국의 부합 ▶상호호
혜적 결과 도출 등 네 가지 원칙을 세우
고 있는데, 한·미 통하스와프는 '감내
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김 장
관도 귀국길에 "한·미 통하스와프" 논
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보였다는 '한국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떤 수준이
냐와 한국 정부가 제안한 MOU 수정
안을 두고 발생한 추가 쟁점이 무엇이
냐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통상 협상을 위
한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분
주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오전 정책
실장·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구 부총리
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회의를 열
었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유선으로 참
석했다. 7일엔 대통령실 주도로 실무협
상단 회의를 열고, 8일에도 실무자
차원의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까지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오현석 기자

한국, 트럼프 관세 직격탄... 미 수입국 순위 7→10위로

(올해 1~7월)

198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아
차·철강 피해 커... 대만 등에도 역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한국이
미국 수입국 순위에서 10위로 미끄러
졌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통
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7월까지 미국의 수입금액별 국가 순
위에서 한국은 10위다. 이 기간 미국
의 한국 수입액은 756억 달러(약 107
조7000억원)로,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3.7%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멕시코
(15%)·캐나다(11.2%)·중국(9.4%)·베트
남(5.2%)·대만(4.9%)·아일랜드(4.6%)·
독일(4.5%)·일본(4.2%)·스위스(4.2%)
가 한국을 앞섰다.
지난해 한국의 비중은 4%로 7위였

는데 올해 10위로 3계단 밀려났다. 무
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
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한
국은 2009년부터는 15년간 꾸준히 6~7
위 자리를 지켜왔다. 한국은 경쟁국보
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
향을 크게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아일랜드·스위스
가 올해 한국을 추월했다.

특히 대만의 순위가 지난해 8위
(3.6%)에서 올해 5위(4.9%)로 가파르
게 상승했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
인 자동차·철강·기계 등이 직간접적으
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됐고, 그만큼 피해가 컸다. 한국
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역시 지
난해 5위에서 올해 8위로 순위가 밀렸다.
장원석·김원 기자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p>1. 센터빌 벽돌 타운 \$589,000</p> <p>Under Contract</p> <p>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p>	<p>4.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p> <p>Under Contract</p> <p>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p>	<p>7. 우드브리지 싱글 \$649,000</p> <p>1997년, 방5, 화3.5 차고1, 뒷산, 최고 학교, 전부 리모델링 포토맥 울/RT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p> <p>오픈하우스 10/12/25 (SUN) 12-3pm 14883 Buttonwood Ct, Woodbridge, VA 22193</p>
<p>2. 애쉬번 타운 \$670,000</p> <p>Coming Soon</p> <p>방4, 화3.5, 차고 2, 최고 학교, RT267/7, 델라스 공항</p>	<p>5. 케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p> <p>케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하이 마켓 싱글 \$1,699,000</p> <p>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물, 고급 조명, 트래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포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p>
<p>3. 맥클린 콘도 \$409,000</p> <p>Coming Soon</p> <p>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p>	<p>6. 애난데일 싱글 SOLD \$699,000</p> <p>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 뒷산, 395/236/495/95/66</p>	<p>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글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p>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탭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민타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미등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동부투어

미동부&캐나다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라즈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뉴욕&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석(음선)
 2박 3일 \$650

뉴욕&천심&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뉴욕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1박 2일 \$399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최고급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품격 고국일주

10박11일(제주포함) |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 \$24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
 강릉/속초/김포/제주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바닷가 호텔 오션뷰 확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리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리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탑여행사에서 올 가을
 여러분을 대형버스로 모십니다

모험크 허드슨 크루즈
 1박 2일 | \$650 (모두 포함)
 출발: 10월 21일(화)

스모키 마운틴
 3박 4일 | \$1090 (모두 포함)
 출발: 10월 28일(화)

서부투어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도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옌세미타·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레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연합 5박 6일 \$1300+항공

단풍특선

4차 10/14~10/24 마감임박

5차 10/21~10/31 마감임박

6차 10/28~11/07 마감임박

상기 고국여행에 일본여행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연합 투어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일본크루즈 11박 12일 11/3~11/14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 오션뷰 발코니 요금문의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당일 단풍특선 **캠버랜드** 가차 여행

출발: 10/18(토), 30(목), 11/1(토) \$179
 대형버스 확정: 10/22(수), 25(토), 27(일)

노아 +아미슈마켓 당일 \$199

10/16, 10/29, 11/13, 12/4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내륙 6박 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제주도 2박 3일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서남권 3박 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동해안 4박 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전국일주 9박 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한국 프리미엄 병원 진료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현대아산병원 경희대병원 가천대길병원

Wonderful TOUR 2025-26 Yearly Schedule

2025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임박
10/20~10/28	튀르키예 일주	\$1899+항공, \$949+항공(동반자)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마감임박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마감임박
11/03~11/11	튀르키예 일주	\$1899+항공, \$949+항공(동반자)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12/22~12/30	튀르키예 일주	\$1899+항공, \$949+항공(동반자)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2026

01/21~02/02	신비의 인도	\$3790+항공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9990+항공
02/01~02/11	호주&뉴질랜드	\$3190+항공

2026년 여행 미리 계획하세요

02/02~02/06	코스타리카	\$19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2500+항공
02/25~03/03	페루 일주	\$29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3190+항공
03/22~03/28	페루 일주	\$2990+항공
04/14~04/2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04/22~05/02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4/29~05/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04/29~05/06	정통 동유럽	\$2990+항공
05/05~05/12	발칸 크로아티아	\$2990+항공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05/11~05/2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2990+항공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05/19~05/29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12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45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290+항공
06/16~06/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2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5890+항공
06/20~07/03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990+항공
06/23~07/03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07/01~07/04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6890+항공
08/01~08/14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5990+항공
08/04~08/14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08/13~08/19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09/04~09/07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1290+항공
09/08~09/18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9/15~09/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29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09/29~10/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09/29~10/06	정통 동유럽	\$2990+항공
10/01~10/14	독일 일주	\$5690+항공
10/05~10/12	발칸 크로아티아	\$2990+항공
10/06~10/16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10/08~10/18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0/13~10/23	고품격 고국일주 5차	\$2990+항공
10/20~10/30	고품격 고국일주 6차	\$2990+항공
10/15~10/28	프랑스 일주	\$5690+항공
10/20~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2290+항공
10/27~11/06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안될까봐...” 명절 하루조차 못 쉬는 ‘작은 사장님들’

**자영업, 최장 열흘 연휴에도 한숨
편의점도 허락 받아야 하루 휴무
디저트 가게 등도 임시알바 못 써
전문가 “가맹계약서 개정 검토를”**

6년째 편의점을 하는 A씨(61)는 최장 열흘인 올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가게 문을 열었다. A씨는 “명절 연휴엔 매출이 평소의 50~6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가맹본부(본사)에선 ‘다른 가게도 다 쉬지 않는다’며 문을 닫지 말라고 해서 아쩔 수 없이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발주사 눈치를 보느라 황금연휴에도 나 홀로 가게를

지키며 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점포 매출이 본사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탓에 연휴 기간에 문을 열고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한 전철역에 발주사와 입찰 계약을 통해 입점한 디저트 가게 사장 B씨도 대체휴일인 8일 가게 문을 열었다. B씨는 “명절 전에 발주사 영업관리자(FC)가 와서 ‘연휴에 하루도 쉬면 안 된다’고 했다”며 “점주 불만이 많아지자 추석 당일 하루만 쉬어도 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점포별로 매출의 18~20%를 수수료로 내는데, 재료비 등을 떼면 명절엔 문을 열어도 적자”라며 “휴무를

하면 나중에 재계약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은 점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처럼 본사와 가맹·입찰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명절 연휴는 물론 평소에도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카페 등 주요 업종 가맹점 가운데 정기 휴무일 없이 운영하는 점포는 2023년 기준 전국에 16만9364 곳에 달했다. 정기 휴무일은 공휴일·명절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뜻한다. 편의점은 전체의 99.2%가 정기 휴무일 없이 운영됐고, 커피·기타비알코올음료점의 81.4%, 제과점의

78.3%가 정기 휴무일이 없었다. 편의점의 경우 지난 2019년 업계의 요구에 따라 점주가 명절 6주 전에 신청하면 당일 하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본사가 휴무의 타당성을 확인해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어 대부분의 점주가 본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명절이나 휴가 때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 A씨와 B씨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평소에 따로 직원을 두기보다 가족의 일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정부가 주 4.5일제를 도입하

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면 직원을 두기 더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주 4.5일제로 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줄면 1.5~2배의 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프랜차이즈 폐점률이 높은 가운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일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더 늘고 서비스 질은 낮아질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휴무와 관련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국정자원 화재 뒤 대통령 예능 출연... 여야 고발전 번졌다

(지난달 26일)

(지난달 28일)

**재난 때마다 공수 바뀌 행적 공개
대통령실, 촬영시간·일정 등 공개
김민석 “대통령 일인 다역은 필연적”
송언석 “위기 대응보다 홍보 중시”**

정치권이 다시 재난의 원인과 대응이 아닌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싸우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해경 여사가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에 출연해 사전 녹화한 게 계기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6일 밤 방영됐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20분쯤 발생했고,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5시3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부터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고, 이는 잃어버린 48시간이다. 냉부해를 언

제 촬영했는지 밝혀라”(주진우 의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유정 대변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자 주의원은 거듭 촬영시점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4일 이 대통령의 촬영 시간과 전후 일정을 공개했다. 유엔총회 참석 뒤 귀국(26일 오후 8시40분)→화재 초진(27일 오전 6시30분)→비상대책회의 주재(28일 오전 10시50분)→‘냉부해’ 촬영→중대본 회의(28일 오후 5시30분).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8시간 행적은 거짓말”(5일 페이스북)이라고 공세를 계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냉부해 촬영은)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K문화를 부각하는 국정 방향 속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엔 김민석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일인 다역은 필연적”이라며 “한·미 무역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를 동시에 소화하며 K푸드 세계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의 일”이라고 썼다. 그러나 출연의 취지는 여야의 강공대결 속에 묻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장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8일 “제1 야당 대표까지 ‘입틀막’하지는 것”이라며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대응보다 자신의 홍보용 예능 출연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건(2014년), 수도권 침수 사태(2022년) 등 재난 때마다 여야는 공수를 바뀌며 본질과 관계없는 대통령 행적 관련 음모론을 둘러싼 소모전을 벌여 왔다”며 “그게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손국화·양수민 기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장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하고 있다.

불난지 13일, 복구율 아직도 20%대

**국정자원 행정시스템 복구 더더
장비 일일이 분해 뒤 분진 제거**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더디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시스템 647개 가운데 167개를 정상화

했다”고 발표했다. 복구 비율(25.8%)은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국민 민원·행정 업무에 파급 효과가 큰 1등급 시스템은 36개 중 22개(61.1%)가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13일째 수습·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택배,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메일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 기업지원플러스 등을 복구했고, 8일 관세청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추가로 복구했다. 정부는 개천절·추석·한글날에서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총력을 기울여 행정정보시스템을 복구 중이다. 공공기관이나 민원 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 복구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연휴가 끝난 뒤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시작 전날부터 공무원 220명과 관련

사업체 인원 570명, 기술지원·분진제거 전문인력 30명 등 8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복구가 더딘 주된 이유로 분진 제거 작업이 꼽힌다. 시스템을 재가동하려면 화재로 전산실에 쌓인 분진부터 제거해야 한다. 장비를 분해한 뒤 분진을 제거하고 다시 장비를 일일이 조립하고 배치,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연계 운영되는 시스템도 많아 복구가 더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정보시스템 완전 복구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애초 복구에 4주 정도를 예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복구 속도로 볼 때 10월 중 100% 완료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 96개는 오는 28일 가동을 목표로 대구 센터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상황실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오후 대구 센터를 찾아가 시스템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문희철 기자

세라젬과 함께 하는 10월 건강 혁신 - 척추와 혈액 순환을 위한 특별한 선택! CERAGEM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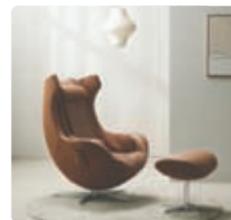
우아하고 건강한 휴식을 위해 설계된 “파우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기술력으로 최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얇은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F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한,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부끄러운 미주총연 실태를 보고도 모르는 채 하면 욕 안 먹고 속 편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70년대 8.15 광복절에 뉴욕 중심가 Waldorf Astoria 호텔 젊은 중역으로서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뉴욕 시의 150년 전통을 깨트리면서 미주총연을 발기한 사람으로서 너무 비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LA 한인회장 소니아 석(Sonia Suk) 여사, 워싱턴 DC 이도영 회장이 미주총연 설립을 서두를 무렵, 심사숙고 후 이도영 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 미주총연 지도부의 탄생입니다.

이후 동부 중심의 미주총연에서 미주 전역을 총괄하는 총연을 이루기 위해 당시 이민 1세 가정마다 2세들이 자라나는 때라 여름방학 때 총회를 개최해야 쉽게 참석할 수 있으므로 저의 2대 총회장 임기를 9개월로 스스로 줄여 시카고에서 LA 구한모 회장을 제3대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후 LA 총회에서 이민휘 회장과 뉴욕 박지원 회장이 경선 했을 때 제가 박 회장을 4대 총회장으로 추천하여 워싱턴 DC, 시카고, LA, 뉴욕을 아우르는 미주총연을 이룩한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12년 전 버지니아 주 피터슨(Peterson) 변호사가 미주총연 선거에 관계 하기 전엔 신임 받는 총회장들이 270만 한인 동포의 대표로 백악관에 초청 받는 등 미국 대통령과도 가까운 유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 여중생들이 주한미군 탱크에 희생되는 사고로 서울 미국 대사관을 향한 데모가 벌어졌고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첫 방미 때 푸대접을 할 때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Woodrow Wilson Center의 이사였습니다. 모국 대통령의 난감한 입장을 감안, Woodrow Wilson Center가 노 대통령을 위해 워싱턴DC 실세 50명을 초대한 Reception Party를 열었습니다. 질의 응답 순서에서 당시 외무부 반기문 특보가 통역하면서 노 대통령이 기립 박수를 받은 것이 워싱턴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되어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환영 등급을 올린 실례가 있습니다.

미주총연 회장은 270만 동포 대표로 민간 외교를 통해 동포사회 권익 신장과 모국을 위한 국위 선양이라는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데 금번 이재명 대통령 백악관 미팅에 미주총연 대표가 백악관으로부터 초대를 못 받고 한국 정부 초대도 못 받은 것 자체가 270만 미주 한인 동포를 대변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180개 도시 한인회를 대표하는 미주총연 총회장은 270만 한인 동포의 권익 신장과 조국의 국위 선양을 앞세우고 본인의 감투욕을 겹쳐히 내려 놓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지도자여야 합니다.

조도식 총회장은 1980~90년대 큰 사업가로 레이건, 부시 대통령과 자주 면담했으며 전세계 한인지도자 협의회를 창설, 초대회장을 지내셨고 이민휘 회장은 미주체전을 도입, 미주 한인사회의 화합을 이끌었습니다. 또 강익조 박선근 이오영 김길남 남문기 최병근 임용근 신필영 김승리 이정순 김재권 유진철 총회장님들은 민간 외교와 국위 선양에 앞장 서고 이중국적 도입 등의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미주총연 분열의 씨앗이 된 피터슨 변호사의 서신을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총연을 2개로 갈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회 결정을 무시합니까.

2019년 11월 2개로 나뉜 총연을 새로운 총연으로 새 회장을 선출하려는 전국 기자회견을 워싱턴DC 회장이자 총연 창립 멤버인 강철은 회장이 주선해서 이도영 초대회장과 제가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워싱턴DC로 갔는데 갑자기 이 회장님 병환이 악화되어 연기 되었습니다. 결국 누구보다 사랑하는 미주총연의 싸움과 갈등에 가슴이 아프셨던지 이 회장님이 일찍 소천하셨는데 그 때 분향소가 두 곳으로 갈라진 비극이 있었습니다.

갈라진 총연은 지난 5년 간 동포사회와 총연을 위해 열정과 젊음을 바치신 이도영, 강철은, 남문기, 박균희, 이민휘, 김승리, 김영만 회장님들의 귀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정위원회가 선출한 정명훈 총회장은 근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민간 외교의 문을 열었지만 후세들에게 본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창조를 위해 서정일 총회장과 동시에 사임. 다시는 갈라지는 아픔이 없는 새로운 역사의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까지 버스 앞자리에 타지 못하던 흑인들은 팔세를 받으면서도 하나로 뭉쳐서 지금은 정계,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의 3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연맹 회장, 이사장을 거쳐 현재 수석 고문직을 맡고 있는데 아시아연맹은 반세기 동안 하나로 뭉쳐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7%를 넘어가고 있는데 10%가 되면 아시아계 미국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White House로부터 무시 당하면서 총회장이란 명함을 갖고 한국으로 나가 대통령과 사진 찍는 것은 미주총연의 사업이 아니고 한인 동포들을 우롱하는 행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두 회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연이 하나가 되어 차세대 리더십을 길러서 한국계 미국 대통령을 만드시 만드십시오.

미주총연이 아시아계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거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God Bless You. 2025년 9월

미주총연 창설 발기인 제2대 총회장 박해달
미주총연 제 5, 6, 10대 총회장 조도식

* 상기광고는 본사의 편집 방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료 광고임을 밝힙니다.

‘금값’ 된 금, 순금 1돈에 80만원 넘었다

‘안전자산’ 금값, 올해만 50% 급등
국제금값 첫 온스당 4000달러 돌파
미 섰다운, 일·프 정치불안 등 영향
골드만삭스 “내년 4900달러 될 것”
“금 변동성 10~15%” 일각선 경계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정부 섰다운(행정기관 일부 폐쇄)에 프랑스·일본의 정치 불안이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 정서가 커지면서다. 국내에서도 순금 한 돈(3.75g) 시세가 80만원을 넘어섰다.

역만장자 달리오 “금, 달러보다 안전”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순금 선물은 전날보다 0.7% 오른 온스당 4004.4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4013.10달러까지 오르며 기록을 새로 썼다. 8일 오전 1시30분에도 4055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금거래소의 순금 한 돈 시세도 81만원을 웃돌았다. 추석 연휴 시작 전 77만원대에서 상승폭을 키웠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 등으로 50% 이상 급등했다. 금값이 연일 상승하는 데는 정치·경제적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섰다운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금값이 사상 처음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선 8일 서울의 금은방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국의 정치적 격변도 시장을 자극했다. 재정 위기에 내몰린 프랑스에서는 신임 총리가 예산 협상에 실패하면서 취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일본에서는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 참패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사실상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여자 아베(아베노믹스 계승자)’로 불리며 금리 인하와 제

정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시장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스위스 귀금속 기업 엠케이에스 팜프의 니키 실즈 전략담당은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재정 불안을 키우며 ‘금 랠리’를 부추기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의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자금의 유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최근 금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정에 금이 급등했던 197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금이 달러보다 확실히 더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앞선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내년 12월 금값 전망치를 기존 온스당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높였다. “중앙은행의 금매입과 서구권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이 견고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6월 세계금협회(WGC)의 조사에서 1년 내 금 보유 확대를 계획한 중앙은행은 43%에 달한다. 전년 대비 8월 기준 10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려 세계 최대 매입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최근 3년 사이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104.4t)의 세 배 이상을 사들였다.

금융권 “투기꾼 차익 실현 나설 위험도”

로이터는 “(금값 상승을) 놓치는 데 대한 두려움”도 랠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나 홀로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금값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해석이다. 골드만삭스는 “민간 자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움직임이 지속한다면 금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값이 정점에 가까워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계감 섞인 진단도 나오기 시작했다. TD증권의 상품 전략 책임자인 바트 멀렉은 “8월 중순 이후 상승세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투기꾼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엘리슨 슈레이거는 “금은 무위험 자산이 아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금값은 6% 하락했고, 금 역시 다른 자산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기업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금의 변동성은 10~15%에 달한다”고 말했다.

역만장자 사이에서도 금 보유 비중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레이 달리오는 “전략적 자산 배분 관점에서만 본다면 포트폴리오의 15% 정도를 금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했다. 월가의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최대 25%까지의 투자는 과하지 않다”고 짚었다. **박유미 기자**

한국 탈출하는 부자들... “올해도 2400명, 21조 들고 떠나”

백만장자 순유출 3년세 6배 급증
영국·중국·인도 이어 세계 4위권
세금·사업환경 등이 이유로 꼽혀

올해 한국 떠나는 부자가 3년 전보다 6배 늘어난 2400명에 이른다.

8일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은 2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 다음으로 4위다. 부호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152억 달러(약 21조 3000억원) 상당의 자금 유출도 예상된다. 헨리 앤 파트너스가 매년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국제 이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 잠정치다.

올해 한국을 탈출하는 부자 수는 3년 전(400명)과 비교해 6배 불어났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6.8%가 “해외 투자 이민을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이들은 ‘세금’, ‘사업 환경’, ‘거주 환

경 요인’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실제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올해 최대 부자 순유출국 불명예를 얻은 영국도 세금이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은 올해 약 1만6500명의 백만장자가 이탈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중국(7800명 감소)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비영국 거주자 제도’가 폐지된 영향이 컸다.

이는 영국에 살지만 영구 거주자가 아닐 경우 해외 소득과 자본이득을 영국 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

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4월 폐지됐다. 이후 해외에서 온 백만장자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집트 억만장자이자 영국 축구팀 애스턴 빌라의 공동 구단주인 나세프 사위리스가 올해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이주했다. 영국 런던에 머물던 독일 억만장자 크리스티안 앙거마이어는 지난해 이미 스위스로 거주지를 옮겼다.

반대로 헨리 앤 파트너스는 올해 9800명의 백만장자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순유입국 1위다. 미국(7500명 증가), 이

탈리아(3600명), 스위스(3000명), 사우디아라비아(2400명)가 뒤를 이었다. 부호들이 UAE로 이주하는 건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는 물론 상속·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 ‘세금 천국’이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젊은 부자들은 해외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데 부담이 없다”며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한국을 떠나는 기업가와 부자가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일: 11AM ~ 3PM)

*Last Seating: 2PM 까지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시원한 국물, 쫄깃한 면발을 뷔페에서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 HYEBAN LUNCH SPECIAL!!



“매운 돼지갈비” 매주 달라지는 특별 메뉴! 이번주에 만나보세요!

Weekly Special



각
볶음탕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홀 서버 (Hall Server)

지도자가 없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큰 행사가 베이징에서 있었다. 그러나 세계가 기대했던 미래지향적 가치와 희망의 메시지와는 반대로 인류의 장래를 더욱 참담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암시였다.

시진핑과 푸틴의 발언과 자세는 지도자로서의 모습과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없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인의 얼굴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자아 의식도 없고 '나의 인생'을 제물로 바친 인간 로봇의 모습이었다. 젊음과 자신의 미래를 빼앗긴 움직임은 인형을 보는 듯했다. 광장을 메운 국민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김정은까지 포함해 저 세 사람의 지도자 밑에서는 그 지도자 이상의 사상과 인간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인상을 남겼다. 김정은 밑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죄책감을 숨길 수 없었다.

세 사람의 사상과 사회 속에서는 휴머니즘이 사라진 지 오래다. 시진핑은 자신이 제2의 모택동이 되기를 바란다. 중국 공산당은 2000년 전통을 이어 온 정신적 유산을 포기하고, 마르크스-모택동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다시 탄생시키려고 노력했다. 인간과 사회의 기본 가치인 정의와 진실, 정의와 자유, 인간애의 정신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정치와 권력이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 간다고 믿는다. 모든 학문



일러스트=김지윤 기자

과 사상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을 배제 포기한 지도 오래다. 한 번도 자유와 사랑이 있는 질서 사회에서 살아 본 경험도 없었다. 선진 국가의 위치에서 본다면 더 높은 인생관과 세계질서를 배우 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지도자들이다. 정신문화와 가치는 사라지고 권력과 무력이라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는 반(反)인륜적 꿈을 그대로 연장한다는 선언도 삼가지 않는다. 그런 지도자 밑에서 그 이상의 국민이 태어나는 힘들다.

법치 이뤄지만 정신적 미성숙

우리는 어떤가. 국민의 수준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앞서있다. 독재정치와 군사정권의 권력 국가를 넘어 법치국

가인 민주주의와 자유·정의의 질서를 누리고 있다. 남은 문제는 법치국가를 질서 국가로 성장시켜 국민의 자유로운 정신적 질서가 성숙한 사회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 인간적 가치가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가는 길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사회 지도층이 형성되지 못하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5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중산층과 사회적 지도층이 급선무다. 대학 출신 인구가 많으면서도 사회적 지도자의 자질과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자부심이 없다. 공직자들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예사로 저지른다. 60대 이상의

어른들까지 사회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 젊은 후진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려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대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아와 인간교육은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은 그 목적을 위한 기초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경제적 중산층은 있으면서도 정신적 지도층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다. 나는 더 배울 것이 없고 지금으로 족하다는 교육자나 지도자는 스스로 성장을 포기한 셈이다.

어떤 인간교육이 중요한가. 사람은 모두가 주어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되어 있다. 가장 위대한 암적 병폐를 자신과 사회에 남겨주는 주체는 '이기주의자'들이다. 이기주의자들은 더 강력한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이기 집단을 형성한다. 그 이기 집단들이 대결과 투쟁을 일삼게 되면 그 공동체는 파국을 면치 못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적 죄악을 범하고 있다. 노사가 투쟁해 경제 공동체를 파괴한다. 정당들은 정권을 위해 국가의 운명과 민심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면 국가 공동체는 더 성장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와 희망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경제가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회적 성장의 세 단계를 충족시켜가는 노력이다.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

가의 후진성은 정치와 경제가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르크스 철학 그대로다. 그러나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가 사회의 목적이 아니다. 정치의 목적은 경제에 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 절대 빈곤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케 한다. 그러나 경제가 해결되면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역사의 순서다. 정신적 가치에 따르는 학문과 문화의 가치다. 기초경제가 채워지면 인간다운 삶의 이성과 윤리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있다. 정신문화는 경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사회, 자유와 창조를 스스로 포기하는 국민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모든 정신적 가치가 사회질서로 채워지는 윤리와 도덕이 필수적이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 역사의 건설과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권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답고 행복한 삶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 삶의 개인과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 크게 나누면 정직과 진실의 가치, 양심의 자유에 따르는 선의 가치, 인간애의 완성이다. 이 세 가지는 휴머니즘과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다. 모든 공동체에 요청되는 진실·자유·인간애의 정신이 구현된다면 인류의 평화와 희망의 역사가 완성된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포퓰리즘의 득세

명절 때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안부문자 공세는 말하자면 일종의 스팸이다. 아마 어디선가 주고받은 명함 때문에 단체문자 목록에 내 번호가 등록됐을 텐데, 대다수는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번거롭기만 할 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눈길을 끌지는 수작(秀作)도 있기는 한데, 이번 추석에는 국민 의힘 모 최고위원이 보낸 문자가 단연 압권이다. "정청래-추미애는 저에게 말 기시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이런 말이 정치인의 명절 인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지 씁쓸하지만, 상당수 국민의 목에 걸린 생선 가시 같은 켄초스러움을 꼭 짚은 센스는 돋보였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하던 법사위발 폭주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재개될 것

이고, 대통령도 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예전에는 서슬 퍼런 임기 초에 여당 중진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으면서까지 폭주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다. 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구조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탓에 중도를 버리고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투항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그들은 학습했다. 지방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누가 알라. 나라고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 있나'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대통령 조차 그들을 말할 수 없다. 아홉 되면 민주당의 강경노선은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 해도 딱히 반박하기도 애매하다.

상식을 지닌 국민 입장에서 폭주가 켄초러운 것은 레임덕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

을 흔들어대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은 포퓰리즘 정치의 주요 특징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첫째, 근거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처럼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국민의 뜻이 형식적인 제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도는 이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무시하고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한다. 내란 진압이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 앞에 내란은 이미 진압된 거 아니냐고 묻는 것은 금기가 됐다. 셋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보듯 관료나 전문가 불신의 대상이다. 그들은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부패한 기득권 취급을 받는다.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 기적이 그들의 헌신에 상당 부분 빚지고 있다는 인정이라든가, 그들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포퓰리즘의 전형적 특징들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라 할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해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포퓰리즘의 득세는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첫째로 그것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민주권을 핑계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건너뛰려고 시도한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대중으로부터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믿음을 배제하고 특정 정치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만을 강화한다. 마침 대통령은 이미 당대표 시절부터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바 있

다. 둘째로 포퓰리즘은 진짜로 필요한 구조개혁을 뒤로 미루고 단기적인 선심성 정책에 몰두한다. 현금성 복지가 대표적이다. 셋째로 포퓰리즘은 정치를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장(場)이 아니라 분노를 배설하는 위험한 오락으로 만들어버린다. 유튜브들이 중진 의원들을 불러앉혀 놓고 호통을 치고, 매일같이 먹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국회의 장면들은 그래서 만들어진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 정치의 문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따라서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 오랫동안 논의돼 오던 해법들은 거의 대부분 약효를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도 저것도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 남은 건 역사의 판단뿐이다. 이 길을 끝까지 갔던 나라들이 어찌 됐는지 세계사가 말해 준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오토바이 타던 여대생... 일본서 드문 비세습 총리 오른다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는 정치사관학교마쓰시타정경속 출신 고이즈미 총리 맨 '자객공천' 당선 2006년 아베 총리 시절 첫 입각 극우 성향에도 "K팝·불고기 좋아해"



가족 재킷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탄 다카이치 총리의 학창 시절. [사진 다카이치 홈페이지]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신임 자민당 총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함께 "장관급을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극우 성향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석에선 "불고기와 K팝을 좋아한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좋아하는 음식은 고로케, 취미는 스쿠버다이빙과 악기 연주. 존경하는 인물은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와 부모님을 꼽는다. 출마 기자회견에선 "회식에 참석을 잘 안 한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다카이치만의 문법이다.

다카이치는 자민당 유력 인사 중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정치인으로, 자수성가형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61년 나라(奈良)현에서 토요타 계열의 기계회사에서 일하는 부친과 경

찰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게이오대 진학을 꿈꿨지만, 학비 부담에 고베대 경영학과로 진학했다. 초등학교 시절 이웃에 살던 음대생 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영국의 록밴드 딥퍼플(Deep Purple) 팬이다. 대학 시절엔 밴드에서 드럼을 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을 일주했다. 지금도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시절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

자유로운 인생이 바뀐 건 84년 '정치사관학교'로 불리는 마쓰시타정경속

(松下政經塾)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영업맨 출신인 다카이치의 부친은 밥상머리에서 마쓰시타정경속을 일군 마쓰시타 고노스케 창업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당시 마쓰시타정경속 학생들은 전자제품 판매 실습을 했는데, 다카이치는 "전구를 갈아주겠다"며 세탁기와 텔레비전을 팔았다고 한다. 마쓰시타 창업주는 정경속에서 "일본은 90년대가 되면 장기불황에 들어간다"고 설교했고, 충격을 받은 다카이치는 "나라의 틀을 바꾸거나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87년에는 대일 강경파인 미국 하원 의원 퍼트리샤 슈로더(민주당)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미국이 아시아와 일본을 어떻게 보는지 깨달았다.

정계 입문을 시도한 건 31세 때인 92년이다. 참의원(상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절치부심, 오전 6시부터 저녁까지 역 앞에 나가 연설해 이듬해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원 배치를 다는데 성공했다.

다카이치의 정치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이번 총재 선거에서 맞붙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

림수상상의 부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다. 2005년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민영화법안에 반대한 의원 지역구에 자신의 사람을 쫓는 전략 공천을 할 때 다카이치가 '자객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도 오랜 인연을 맺으며 지원을 받았다. 다카이치는 2006년 9월 제1차 아베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처음 내각부 특명대신으로 입각했다. 지금도 옛 아베파 의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연애담도 남다르다. 중의원을 지낸 야마모토 다쿠(山本拓·72)와는 인생 첫 낙선을 경험한 2004년에 연을 맺었다. 일본 최초의 '퍼스트맨'이 된 야마모토는 당시 낙선에 의기소침해하던 다카이치에게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는다면 후보가 되겠다"고 프러포즈했다. 둘의 사이는 2017년 멀어지기도 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가 아베를 지지한 반면, 야마모토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를 민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러던 두 사람은 2021년 재결합했다. 이번엔 남편인 야마모토가 다카이치의 성을 따라 '다카이치 다쿠'로 바꿨다고 한다. 김현에 기자



지난 7일 자민당 당사에 출근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 이날 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릴 노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프통신]

다카이치 사나에	
• 1961년 3월 7일 일본 나라현 출생	
• 1984년 고베대 경영학과 졸업, 정치인 양성기관인 마쓰시타정경속 입소	
• 1993년 무소속으로 중의원 당선	
• 1996년 자민당 입당	
• 2012년 자민당 정조회장	
• 총무상, 경제안보상 등 역임	
• 한신 타이거스 팬	

“다카이치, 외교자산에 대한 인식 있어...대외정책 쉽게 안 바꿀 것”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정권' 개막이 예고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새 총재는 그동안 공공연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내 대표 지한파 학자로 꼽히는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명예교수는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예측은 불가하다"고 전망했다. 보수 지지층을 인식해 참배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실현에 나설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의 외교적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미야 교수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정책이 매우 예측 불가능해진 상황인 데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진척되고 있어 한·일 관계가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역사 문제에 온건 성향을 보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과 비교하면 거리감이



2019년 2차 아베 신조(앞줄 왼쪽 둘째) 내각에서 총무상에 임명된 다카이치 사나에(앞줄 맨 오른쪽) 총재. 아베 전 총리와는 1993년 의원 배치를 함께 한 '국회 입성' 동지다. [EPA·연합뉴스]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미야 교수는 "양국이 쌓아온 서로의 암묵적인 양해와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뒤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한 만큼 "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일방적 현상 변경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자격

이 충분히 있다"는 말도 보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역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잃어버리게 될 '외교 자산'에 대한 인식이 있어 (다카이치 총재가 이전 정권의) 외교 정책을 쉽게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재임 기간 중 한 번은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들지만,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니시노 교수는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관점에서 경제협력과 같은 한·일 협력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 새 일본 정부가 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한 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비핵화 3단계 접근에 대해 "앞으로 한·일, 한·일·미 간에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3단계론은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보지만, 일본과 인식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현에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묘자리’ 말고 ‘뫼자리’

추석에는 조상의 무덤을 찾아 여름내 무성해진 잡초를 베고 성묘를 드리는 풍습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이를 따르기가 쉽지 않다.

“선산에 계신 아버님 묘자리를 정리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별초하지 못한 묘자리를 생각하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다” 등과 같은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 나오는 ‘묘자리’와 ‘뫼자리’는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어느 게 맞는 표현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 가운데 사이시옷 규정을 알아야 한다. 맞춤법에 따르면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 ‘뫼자리’는 한자어 ‘묘(墓)’와 순우리말 ‘자리’가 만나 이루어진 합성어로 [묘자리]로 발음된다. 즉 앞말인 ‘묘’가 모음 ‘오’로 끝나면서 뒷말이 된소리인 [자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 ‘뫼자리’로 표기해야 한다. ‘뫼자리’가 아닌 ‘뫼자리’로 쓰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사람의 무덤을 가리키는 ‘묘(墓)’의 순우리말은 ‘뫼’이다. 이 ‘뫼’와 ‘자리’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가 ‘뫼자리’다. 과거에는 ‘뫼자리’만 표준어로 인정했기 때문에 ‘뫼자리’는 틀린 말로 간주됐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일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지식재산 컨설팅

K-푸드 전성시대의 역설



지은정
미국 특허변호사

문제는 상표권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 상담 사례로, 한 업체는 해외 시장에서 유사한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지 유통업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다행히 초기 대응으로 큰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포장 디자인조차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한 영역임을 실감한 사례다. 이처럼 디자인·포장 문제는 저작권적 성격과 상품권적 성격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기업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대비해야 한다.

음식 자체의 제조법도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 라면의 조리 공정, 소스 배합 비율, 발효 과정 등은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100년 넘게 비밀 레시피를 철저히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브랜드 가치를 지켜온 것은 잘 알려진 사례다.

K-Food 역시 ‘맛의 비결’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모방 제품에 의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결국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가 유기

적으로 맞물려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오프라인 유통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얻자마자 유사한 모방 상품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흔하다.

e커머스 시대의 지적권 분쟁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한 번 이미지가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K-Food Fair가 보여준 활기는 한국 식품 산업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이 가능성이 오래 지속되려면 반드시 지적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필요하다. 브랜드는 이름만이 아니라 포장, 레시피, 심지어 스토리텔링까지도 포함된다. IP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Food, 이제는 그 가치를 권리로 지켜야 할 때다. 한국의 식탁에서 자란 맛이 세계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기업의 노력과 문화적 자산이 녹아 있다. 그 노력이 모방과 분쟁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K-Food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침에

응급실 풍경



이정아
수필가

응급실에 꽃 단장하고 가는 사람은 없다. 쓰러져서 남이 911을 불러줘 가거나, 제발로 가더라도 매우 아파서 가는 것이므로 제정신이 아닐 경우가 많겠다.

나도 아픔을 참다가 아무래도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살살 준비를 했다. 가면 여러 검사를 할 테니 샤워를 하고 속옷은 최소한으로 입고 아들이기를 불렀다. 나중에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책받침으로 정전기 일으킨 머리칼처럼 흰머리가 공중에 다 뿔쳐 부스스하더라만 알았어도 손을 못 쓸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응급실이다.

연휴에 놀러 가려고 여행 짐을 싸아이는, 엄마의 호출에 병원에 데려와 등록하고 입원실 방배정까지 4시간을 기다렸다. 제 아빠와 바통 터치하고 여행지로 늦게 출발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입원하면서부터는 인간이라기 보단 생체실험 용에 가깝다. 어디 어디가 아프다는 하소연은 혼잣말일 뿐이고 침대에 살려 MRI를 찍고 CT를 찍으려 방사는 병커로 간다. 서늘한 지하방에 기계 음만 찰칵거리면 외계의 한구석에 와 있는 듯 낮

검사, 혈압체크, 가슴 엑스레이, 넷째 날 피검사, CT 두 차례, 항생제 링거. 온몸 구석구석 진단했으니 일 년 내 두고두고 받을 검사를 한꺼번에 받은 셈이 되었다. 복다위에 피서한 것으로 치니 차라리 잘되었다.

새벽이면 어둠 속에서 쑥 나타나는 피검사 간호사는 마치 저승사자 같다. 그 이후 약을 주러, 혈압체크하러 간호사들이 들락거리면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이 더 말뚱 해진다. 그 와중에 “코드 블루 웨스트 룸 607!”하는 방송이 연속으로 들리면 가슴이 철렁하다. 오늘 새벽 레테의 강을 건널 누군가가 또 있던 신호이다.

병원에 오면 공연히 겁도 나고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 병원 가기를 미루고 미루게 된다. 평소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뺨대는 자존심이 기계 앞에선 손 번쩍 들고 항복도 척척하는 이런 이윤배반은 또 무어란 말인가?

남편이 간병한다며 곁에 있어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아드님은 벌써 가셨네요?” 한다. “나원 참!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라니까요 웃!”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공급 과잉이 부른 디플레이션... 구조 개혁으로 승부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은 경제의 활력을 앗아간다.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물건 사기를 꺼린다.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생산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생산이 줄면 기업 수익도 줄고 고용과 임금 감소로 이어진다. 일자리와 임금이 줄면 내수 부진을 야기하고 경제 침체가 심화한다. 악순환이다.

경기 개선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도 실물 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대차대조표 불황'도 빚어진다. 가계 등 경제 주체가 먼저 빛(부채)을 갚고 저축을 하며 소비를 줄이는 탓에 내수 위축이 심화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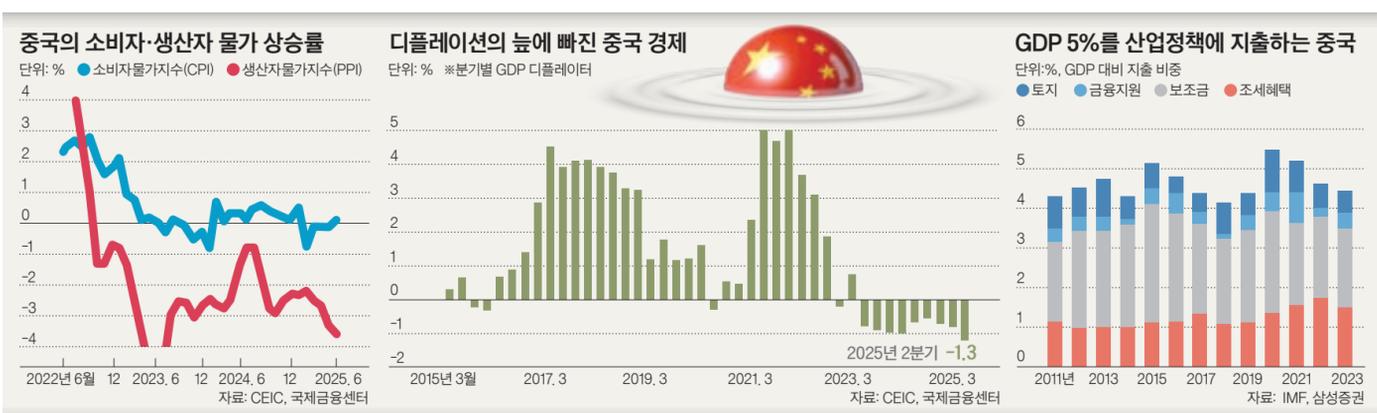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올해 상반기(1~6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각각 -0.1%, -2.8%를 기록했다. PPI의 경우 지난 7월(-3.6%)과 8월(-2.9%)에도 뒷걸음질을 이어가며 35개월 연속 하락 행진했다.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 변동을 반영해 한 나라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2023년 2분기부터 지난 2분기(-1.3%)까지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장 긴 기간 부진 기록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GDP 디플레이터가 2023년(-0.51%)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지난해(-0.71%) 하락 폭은 더 커졌다.

개혁·개방 이후 최장 디플레 기록

중국이 디플레의 늪에 빠진 건 무엇보다 수요 부진 탓이다. 2021년恒大(恒大·에버그란데) 그룹 파산 이후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산 가격 하락 여파로 소비가 위축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소득 성장률은 2023년 4.2%에서 2024년 2.2%로 낮아졌다.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부진은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2023년 7.1%였던 임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5.8%로 떨어졌다.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코로나19 이전 7%에서 지난해 5.1%로 둔화했다. 알뜰 소비도 트렌드가 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커피 등의 저가 구매 인증이 확산하는 등 소비 다운그라이드(消費降級)가 유행하



고 예비적 저축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소비 촉진을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려 중국 정부가 돈을 풀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중국 정부는 올해 이구환신(以舊換新·새 제품으로 교환) 보조금으로 3000억 위안(약 59조 원)을 쓴다. 지난해의 2배 규모로 상반기에만 1620억 위안(약 32조 원)을 집행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가전제품 등의 소비는 늘었지만 지난 1~5월 가전제품 가격은 1.5% 떨어졌다. 소비재 물가도 0.4% 하락했다. 업체 간 가격 경쟁이 과열된 탓이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출혈 경쟁인 '내이쥘안(內卷·involution)' 때문이다. '안으로 말려들어 간다(내권)'는 의미의 내이쥘안은 원래 인류학 용어로 내부 경쟁이 치열하지만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한다. 제 살 깎아 먹기 가격 경쟁부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장시간 근로, 보여주기식 야근까지 소모적인 비생산적 경쟁을 총칭한다.

지난 5월 자동차 업계의 가격 할인 경쟁이 내이쥘안의 대표적 사례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가 주요 모델의 가격을 최대 34% 낮추자 업계 전체가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 신차를 판매 처리하고 이를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사실상 새 차인 '주행거리 0km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풀렸다.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 등이 지연되며, 자동차 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까지 커졌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판매 경쟁도 내이쥘안의 또 다른 예다. 광군제(11월 11일)와 함께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로 꼽히는 '618 쇼핑 축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 진행됐다. 징둥과 알리바바 등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일부 판매자는 고객 확보를 위해 역대급 상품까지 판매했다. 중국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27% 정도인

을 감안하면 디플레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가 하락을 부르는 내이쥘안의 근저에는 중국 경제의 만성 질환과도 같은 공급 과잉이 있다. 공급 과잉을 초래한 건 부동산 및 수출과 함께 중국 경제 성장 엔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투자다. 중국 정부가 제조업에 쏟아부은 막대한 보조금이 공급 과잉을 야기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보조금은 기업 매출액 대비 4.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7%)의 6배에 이른다.

'이익 없는 성장' 공포 커지는 중국

쏟아지는 정부 보조금에 특정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졌고, 경제성과 무관하게 기업이 설비를 급격히 늘리며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철강, 정유 등이 공급 과잉으로 내이쥘안에 빠져 디플레이션을 이끄는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공급 과잉은 상상을 초월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중국의 공급이 전 세계 수요의 2배, 전기차 배터리는 1.3배 수준이다.

공급 과잉은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4월 산업재고는 17조1000억 위안(약 338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어났고, 2019년 말보다 43.7% 증가했다. HSBC는 "가격 인하를 통한 재고 소진 노력에도 기업이 과잉 생산에 의존하며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부진에 공급만 늘면서 불륨버그는 "이익 없는 성장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 그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과도한 가격 경쟁 자제와 산업 내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판네이쥘안(反內卷) 캠페인'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불공정 경쟁법과 가격법 개

정안도 마련했다. 이런 분위기 속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1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발표문을 통해 기업의 무질서한 가격 경쟁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조했다.

"자원 배분 왜곡, 중국 GDP 2% 낮아져"

정부의 서슬 퍼런 기세에 과도한 가격 경쟁에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 중국 자동차 업계는 할인을 축소했고, 음식 배달 플랫폼도 할인을 자제했다. 감산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1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지난 8월 전 세계 생산량의 3%를 차지하는 초대형 리튬 공장의 가동을 3개월간 중단했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설비 폐쇄와 증설 중단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태양광 분야의 경우 폴리실리콘업계가 500억 위안(약 7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국 태양광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매입한 뒤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의 배터리 분리막 기업 8곳은 향후 2년간 신규 증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은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건 단순히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만연하는 비효율적 투자가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산업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원 배분 왜곡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1.2%, GDP는 2%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선택은 경제 구조 전환과 산업 구조조정이다. 이른바 '공급 개혁 3.0'으로 '판네이쥘안 캠페인'이 그 전초전인 셈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달 개최될 4중 전회 전후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윤

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국유기업 개혁(1998-2002년)과 공급 측 개혁(2015년)에 이은 개혁개방 이후 세 번째 공급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이 예상하는 개혁 방향은 '제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과 내수 중심의 성장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공급 개혁 3.0'은 무조건적인 설비 감축보다는 신규 투자를 줄이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력을 확보한 상위 업체를 주축으로 산업을 재편하면서 차이나 테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고도화' 통한 경제 구조 전환

다만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2015년 공급 측 개혁 시기에는 국유기업이 과잉 생산을 주도해 정부 개입이 용이했지만 현재는 민영기업이 과잉 생산과 그에 따른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만큼 정책 효과가 지연될 수 있다. FT에 따르면 태양광의 95%와 배터리의 65%를 민영기업이 생산·공급하고 있다.

감산과 폐쇄 등 생산 능력 조정이 야기하는 성장률 하락과 실업 증가의 충격을 흡수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충분치 않은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국 경제의 엔진 역할을 담당했던 부동산과 수출이 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줄일 완충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서다. 디플레이션 극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투자은행(IB)은 중국의 저물가 기조가 향후 1~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금융센터의 김기봉·이지훈 연구원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관련한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산업 개편에 따라 첨단산업의 생산성이 회복되면서 전통산업의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기업 간 양극화도 어느 정도 해소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현욱 논설위원**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패어팩스스터 도서관 맞은편

시 설

EU도 철강에 50% 관세... 옆친 데 덮친 수출 돌파구 찾아야

유럽연합(EU)이 지난 7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무관세 적용 물량(쿼터)을 절반 가량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 뒤 EU로의 우회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 장벽을 높인 것이다. 미국의 고관세로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옆친 데 덮친 격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양대 수출 시장으로, 단일 시장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44억8000만 달러)은 미국(43억5000만 달러)보다

13조원 나랏돈 쓰고 8월 소매판매 되레 감소 구조개혁으로 기업 투자 나서야 소비도 회복

많았다. 하지만 이번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EU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에 몰아친 관세의 충격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50% 관세가 부과된 이후 대미 철강 수출은 7월(-25.9%)과 8월(-32.1%), 9월(-14.7%)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EU의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면 철강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25~50%의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미국 수입 시장의 점유율도 하락했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탓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올해 1~7월 한국은 10위(3.7%)를 기록했다. 지난해 7위(4.0%)에서 세 계단 밀려난 것으로, 198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더 큰 문제는 수출을 둘러싼 상황이 나빠지는 데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 기업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협상이 타결된 일본과 유럽 등의 관세는 15%대로 낮아졌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멕시코가 지난달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다른 국가도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목을 죄어 오는 상황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로 세워지고 있고, 통상 전선이 미국을 넘어 유럽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각국과 관세 협상 등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혁신을 위한 투자와 연구에 매진해 초격차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등 수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과정에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주길 당부한다.

정무수석의 개혁 속도전 직격, 민심 돌아보는 계기 돼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추석날 인터뷰에서 '여당과의 온도 차'를 언급해 여론에 파문이 일고 있다. 우수석은 지난 6일 라디오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여권 내 이견을 공개했다. 정치권이 추석 밤상 민심에 촉각을 세운 시점에 나온 이 발언은 개혁 속도전을 자축하는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과 경고로 해석됐다.

우수석은 "여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는 질문을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근거잡기와 검찰 개혁 속도전에 견제구를 던진 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감추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의 기류는 그만큼 다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유엔 순방 성과를 대법원장 정문희 이슈가 잠식하고, "판사가 신이나"는 식의 여당 대표의 조강경 기조가 대통령 지지율을 50%대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 대사를 그르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여권 안에서도 나온다. 여제 대통령실에서 "추석 민심을 들여보니 역시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

문제에 대해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개혁 공세 선봉에 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심기를 SNS로 드러냈다. "상기하자 검찰 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 선동적 단문으로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당이 왜 이래"라는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고 우수석을 비판했다.

미묘한 긴장감 속에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과 검찰 개혁 속도전에 수위를 조절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추석 인사와 함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SNS에 적었다. 민주당은 여제 "밥값 하는 정치 하자"면서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 70여 개 비정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우수석을 필두로 대통령실이 꼬인 정국의 해결사로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의 독주와 당정 지지율 하락의 책임에서 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다. 검찰청 폐지 입법 시기를 추석으로 못 박는 속도전과 사법부 압박에 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여당과의 온도 차보다 대통령과 민심의 온도 차를 살펴 봐야 한다.

조용필과 '여의도의 하이에나들'

김승현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가왕(歌王)' 덕분엔 추석 연휴가 더 풍성해졌다. TV로 방송된 콘서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그가 왜 노래의 왕인지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경외심마저 느낀 건 1950년생, 만 75세의 무대라 믿기지 않는 가창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인 필자에게도 젊은 날 여러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조용필이 녹아 있었다.

연애가 잘 안 풀리던 때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 줄 수가 없나'(모나리자·1988)를 목놓아 불렀고, 개풍철학을 읊으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순 없잖아'(킬리만자로의 표범·1985)라고 품을 잡았다. 입대하는 친구들과 '친구여'(1983)를 울부짖었고, 어느새 제대한 그들과 대성리가 떠나가도록 '여행을 떠나요'(1985)를 외쳤다. 한 달 전 공연장에서 응원봉을 흔든 60대 '오빠부대'는 더한 감동에 젖었을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30곡 정도 불렀지만 조용필은 200곡 넘는 노래를 발표했고, 매번 새롭게 팬과 교감했다. 데뷔 57주년을 맞은 노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이를 위로했는지 가능하게조차 버겁다. '보다 많은 실재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바람의 노래·1997)라는 통찰과 관조의 품격엔 고개가 숙여진다.

조용필 장르가 지닌 힘의 원천을 한 대중음악 전문기자는 1988년의 인터뷰에서 찾았다. 조용필은 "가수의 생명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한발 앞서 가는 음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 생명력이 팬에게 전해졌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고추잠자리'(1981)를 사용한 박찬욱(62) 감독은 "고추잠자리를 들었을 때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구나 싶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발매된 20집 앨범도 록과 팝을 조화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년의 신곡에도 MZ들이 반응하고 75세 가왕이 늙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신이 설정한 가수의 본령에 충실했다는 것. 젊은 뮤지션들이 조용필을 계속 리메이크하는 것도 그 본질의

힘이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한류 역시 '조용필 보유국'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가수 아이유는 "전 세대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칭송했다.

조용필을 시인으로 명명한 문학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교수는 수년 전 칼럼에서 "폭은 넓었고, 음색은 다양했으며, 노랫말은 깊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찬사를 받는 가왕은 정작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다"며 팬들에게 공을 돌렸다. 마지막 로망은 "노래하다 죽는 것"이라고 하니 위대한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석의 감동을 문득 여의도 정치권에 전하고 싶었다. 조용필을 흉내라도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폭넓고 다양하게 깊은 울림을 주는 정치는 불가능한가. 이번 추석에도 기대난망이다. 새로움을 추구하기는커녕 상대를 죽일 듯한 혐오만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까지 결국 고소·고발 전으로 비화시켰다.

국민의 삶 채워준 가왕의 노래 생명력은 새로움 추구한 도전 썩은 고기 찾는 정치가 배워야

자리를 바꿔 가며 쏘아내는 동어반복에 실소가 나온다. 국민이 치를 떨게한 비상계엄과 결별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대표가 '공포정치'와 '입찰막'을 비판한다. 헌법에 따른 탄핵 결정으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우롱한다.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질은 당리당략과 자기 정치에 매몰됐다. 강성 지지층에게 충성하면 내년 선거가 유리해지고 나라가 결판날지언정 나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속이 여야 정치인들의 승리 공식이 돼버렸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어떻게든 자극적인 말을 해야 존재감이 생기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제 여의도엔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만 득실거리게 되는 것인가. 젊어 죽어도 산성에 오르는 표범을 찬양한 조용필의 독백을 남은 연휴에 음미해 보길 바란다.

◆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원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저리제사사(주)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구FINANCIAL TIMES, 일간지(주)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안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지몬드 페닌슐라 상담원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업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CMM 회원 혜택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OCT. 9th - OCT. 16th, 2025

농치면 완전 후회하는

다시멸치 가격파괴



다시멸치 박스
Dried Anchovies for Soup Base

~~\$39.99~~

LIMIT
2 BOX
3.3 LB/BOX

\$29.99

편집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Sterling, VA: 30 R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 Annandale, VA: 532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365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 Herndon, VA: 490 Eichen Street, Herndon, VA 20170
- Ellicott City, MD: 86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Rockville, MD: 1902 Vey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 Silver Spring, MD: 13625-A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October 9,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가주 주택 부족 해소 법안 봇물

가주 의회가 주택 부족을 해소할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월 30일 AB130과 SB131에 서명했다. 두 법안은 주택과 공공 시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없앴다.
주택에 중점을 둔 AB 130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 빈 땅에서 주택을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방 정부가 주택 개발을 허가할 때 신청 기준이 갖춰지면 60일 이내에 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SB131은 ▶고속철도와 첨단 제조 시설, 보육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지역 서비스 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도시 지역의 빈 땅 지도를 작성해 지방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두 법안을 두고 “최근 가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택과 인프라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가주 주택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법안 3건은 주지사 서명을 남겨 두고 있다. 13일까지 주지사가 서명해야 할 법안은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와 지방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콧 워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SB79는 대중교통 역세권에서 주택 개발을 쉽게 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 전역의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의 반경 0.5마일 이내 부지의 조닝을 재조정해 특정 유형의 고밀도 주거와 주상복합, 상업 개발을 허용해 지역별 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메트로역과 버스 정류장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도록



가주 의회가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역세권에 고밀도 다가구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법안도 있다.

도시 빈 땅 활용 법안 2건 주지사 서명 주택 건설 허가 간소화 법안 4건 통과

조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조닝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개발 프로젝트는 허가 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건물 높이와 밀도, 용적률(FAR)은 대중교통 유형과 빈도, 역에서의 거리 등에 따라 정한다.

SB 79는 주택책임법을 적용한다. 기준을 충족한 개발 계획은 지방정부가 거부하더라도 주택책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지방정부가 거부하면 벌칙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상 부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해야 할 경우 렌트비 규제 대상이면 대체주택 요건을 적용해 일부 유닛은 저소득 층으로 할당하거나 렌트 보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 예외와 대체 계획을 허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 지자체가 채택했거나 채택 예정인 규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하고 필요하면 SB79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대중교통 기관이 소유한 토지도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일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SB79는 주택 건설 지지자들이 환영하는 반면 로컬 도시와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주의 기준을 앞세워 로컬 정부가 갖고 있던 용도와 밀도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주택의 밀도를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저렴한 주택을 할당하는 기준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고밀도 개발이 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반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블랑카 루비오 하원의원이 상정한

AB1007은 주택 개발을 신청했을 때 로컬 정부나 기관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 주와 로컬 승인 기관은 주택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90일 안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AB1007은 이 기간을 45일로 줄인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AB1007은 절차상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인 허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가주건축산업협회(CBIA)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공식적인 반대는 없는 상태다.

크리스토퍼 워드 하원의원이 상정한 AB253은 특정 주거 프로젝트의 계획 검토를 신속 처리해 건축 계획이 주와 로컬 법규를 준수하는지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건축 계획 검토는 해당 시나 카운티 건축 부서가 담당하는데 평균 9개월이 걸린다. 이 법안은 공공 건축 부서가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지 못할 경우, 주택 개발자가 제3의 민간 엔지니어나 건축가를 고용해 대신 검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드 의원은 “가주는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워드 지연되면 문제를 악화한다”며 “이 법안은 커뮤니티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쉬 후버 하원의원의 AB1308호는 주택 건설의 또 다른 지연 요인인 건축 검사 절차를 개선한다. 후버 의원은 건축 검사를 주택 건설의 중요한 걸림돌로 보고 로컬 건축 부서가 건설 완료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2025
Ebenezer
Year End Single party
한국과 미국 전역의 싱글들을 위한
연말 파티에 200명 초대 합니다.
풍성한 상품 및 1000불 상품, 항공티켓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th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나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수업료: \$350 (교재비: \$100)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골프, 아주 넓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버지니아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바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1,075,000
포도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도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DC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로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남가주 렌트비 상승폭 오렌지카운티 최고

전년 대비 1.4% 오른 2576불
샌타애나가 4.4%로 전체 1위
LA카운티 0.3% 상승 2475불
산불 피해로 공급 줄어 가격 ↑

LA와 오렌지카운티(OC)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서 렌트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가 지난 7일 부동산 분석업체 아파트먼트리스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LA·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이고·벤투라 등 6개 카운티 내 50개 도시의 중간 렌트비는 1년 새 0.4% 상승했다.

카운티별로 보면, OC의 렌트비가 전년 대비 1.4% 오른 2576달러로 상승폭과 가격 모두 가장 높았다. OC에서 렌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샌타애나로 4.4% 올랐다. 반대로 가

격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한 곳은 라구나나젤로 4.1% 내렸다.

벤투라 카운티는 0.8% 올라 2475달러였다. 벤투라시는 렌트비가 1년 새 3.6%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으며, 사우전드오크스에선 0.3% 내렸다.

LA카운티 또한 0.3% 상승한 2090달러로 집계됐다. 렌트비 상승이 가장 집중된 곳은 버뱅크로 2.2% 상승, 웨스트코비나는 1.5% 떨어졌다.

반면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0.1%, 리버사이드 카운티 0.9%, 샌버나디노 카운티 1.4%씩 소폭 하락했다.

가주 전체 도시 중 20곳만이 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1년 전만 해도 렌트비가 동결되거나 대부분 하락했던 세입자에게 유리한 흐름과 대비된다. 당시 중간 렌트비는 1% 하락, 30개 도시에서 렌트비가 내렸다. 이때 가장 큰 하락 폭은 기록한 도시는 샌타모니카로 렌트비가 전년 대비 6.4% 하락한 바 있



OC지역 렌트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여바인의 임대 매물.

박낙희 기자

다. 매체는 이번에 임대료 인하세가 꺾인 것은 주택 공급 불균형과 자연재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우선 최근 가주에서 주택 구매비용

이 여전히 높아 많은 가구가 구매 대신 렌트를 선택하면서 임대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이뤄진 신규 주택 건설 붐이 마무리되면서 신규 공급

이 감소, 최근 수익성 우려 탓에 개발업자들의 신규 개발 허가 건수도 감소 중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발생한 LA카운티 산불로도 다수의 주택이 소실돼 가주의 고질적인 주택난이 가중된 상황이다.

특히 화재 피해 지역 인근 지역인 LA·벤투라·OC에서 렌트비 상승이 두드러졌다. 또한 LA국제공항(LAX) 인근 도시들이 가장 큰 가격 상승 폭을 보였다.

이들 카운티 3곳의 총 30개 도시 중 24개 도시의 렌트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샌디에이고·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20개 도시 중 렌트비가 오른 도시는 6곳에 불과했다.

한편, 가주 전체의 중간 임대료는 1년 새 1.3% 상승해 평균 월 2198달러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0.8% 하락한 1394달러로 나타났다.

우훈식 기자

부동산 대책, 답습할 건가 베풀할 건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두 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첫 번째 대책이었던 6·27가계대출 규제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에서도 “짧으면 석 달, 길면 6개월 가는 효과”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출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은 더 가팔라졌다.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짓겠다는 막연한 숫자는 먹히지 않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 약 30만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를 예고했지만 7년 지난 현재 완성된 곳은 없다.

서울 내 정비구역 442곳 중 올해 1분기 기준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62곳(14%)뿐이다. 신도시·유휴부지·노후주택 개발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지만, 수요자 불안 등 심리적 요인은 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공급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 짓는 게 어렵다면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매물이 돌게 하는 방향이다. 다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 중 전월세로 거주하는 이들이 집을 내놓는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된다.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세금 규제를 풀어야 가능한 방안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양극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상현 국세청장.

[사진 국제청]

를 이끈 ‘똥퐁한 한 채’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현상은 지방의 돈까지 수도권 부동산으로 쏠리게 했다. 서울에 사는 한 금융회사 인사가 지방 유지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 빼고 모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던 이야기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보유세를 필두로, 부동산 세제 강화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도 세금 규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집값 잡는 데 세금(규제)을 쓰지 않는다는 건 오산”이라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

부 장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두 번의 대책 뒤에도 꺾이지 않는 집값은 어쩌면 세제를 손볼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의 총합을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수십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과거 정부 기조를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베풀어야 한다.

조세 저항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고 정권 초 지지율과 내년 지방선거도 의식해야겠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온 실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선미 경제부 기자

미국인 서울 아파트 6000채 소유

60%가 강남 등 ‘한강벨트’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가 6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적자의 아파트 구매는 60% 이상은 ‘한강 벨트’인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국적자가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 1028채, 서초 742

채, 송파 458채 등 강남 3구에만 222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 국적자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지역은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인은 구로 610채, 영등포구 284채, 동대문구 150채에 집중돼 있었다. 강남권은 159채에 그쳤다. 이어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순으로 외국인 아파트 보유가 많았다.

김철용 기자

중가주에 초대형 카지노 개장

하드록 카지노 테혼 내달 오픈
6억불 규모...인디언 부족 협력

라스베이거스 초대형 리조트에 맞먹는 6억 달러 규모의 대형 카지노가 다음 달 중가주에 문을 연다.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하드록 인터내셔널이 중가주 테혼 인디언 부족과 협력해 추진 중인 ‘하드록 카지노 테혼(Hard Rock Casino Tejon)’이 내달 13일 공식 개장한다.

카지노는 베이커스필드 남쪽 메틀러 지역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테혼 부족 소유 부지에 들어선다. 약 1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게임 공

간은 MGM 그랜드, 벨라지오, 아리아, 만달레이 베이 등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카지노와 견줄만한 크기다. 이곳에는 슬롯머신 2000대, 블랙잭·텍사스홀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50여 개, 그리고 VIP룸이 마련된다.

짐 앨런 하드록 인터내셔널 회장은 “하드록의 브랜드와 테혼 부족의 비전이 결합해 지역 엔터테인먼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지노 외에도 하드록 카페, 스테이크·해산물 전문점 ‘딥컷’, 아시아 레스토랑 ‘유유’ 외에도 다양한 메뉴를 갖춘 푸드 홀이 운영된다.

이은영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클립턴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스프링필드 타운홈
\$1.5M	\$3,300	\$3,000	\$3,000
방5/화4.5/차고3, 1.05 에이커 새 지붕, 새 HVAC	방3/화2.2/차고1, End Unit 편리한로케이션, 관리잘 된 집	방3/화2.5/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굿로케이션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하, 교통편리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세금, 피할 수 없다면 타이밍을 조정하라

세금 미루며 할 수 있는 자산 재설계 세 가지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이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본 원리다. 다만 세금을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많은 고액자산가와 사업주, 투자자들은 단순히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 시점을 지연시켜 그 기간 동안 세전(pre-tax) 자금으로 복리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세금 유예 구조를 활용한다. 이 목적을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 가지 구조가 있다. '1031 Exchange', 'Delaware Statutory Trust (DST)', 'Deferred Sales Trust (DST)' 등이다. 이 셋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작동 원리와 적용 범위는 서로 다르다. 똑같이 세금을 미루지만 세금을 미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개인 소유의 자산을 팔게될 경우 결국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핵심은 더 늦춰서 부담을 더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된다.

제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세무전문 변호사, 회계사, 트러스트 관리인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매각대금을 분할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자소득과 분할과세 구조가 복잡할 수 있다. 또한 사망시 후대에게 재산이 상속될 때 받게 되는 'Step-up'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되어야 한다.

DST-Deferred는 굳이 보자면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은 1031의 개방형 버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자산을 팔고도 세금을 유예한 후 대신 세전 자금으로 재투자하며 복리 혜택을 활용해 자산을 계속 증식한 후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유연성'

세 가지 구조는 모두 세금 유예 효과를 제공한다. 이들 방법들이 상호 갖는 진짜 차이는 내가 원하는 자산 운용 방법과 유관하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1031은 세금 유예를 위해 즉시 재투자를 강제한다.

Delaware DST는 부동산은 유지하지만 직접 관리에서 해방된다. Deferred Sales Trust는 자산 종류의 제약 없이 세전 복리 운용의 자유를 준다.

요컨대 1031은 '세금 유예를 위한 구조', DST-Delaware는 '세금 유예와 부동산 관리 간소화 구조', DST-Deferred는 '세금 유예와 재투자 및 운용 유연성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필요에서 의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국은 설계가 중요하다. 세금 유예 구조는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모든 유예는 결국 과세를 나중에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나중'까지 세금을 미루고 얻는 혜택의 내용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전 복리 성장으로 자산이 두 배, 세 배가 될 수도 있고 상속시 자본 이득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세금을 언제 내느냐'보다 세금이 미뤄진 동안 자산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얼마나 일하게 만드느냐일 것이다.

퀀치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1031 Exchange

같은 종류의 자산 간 교환으로 세금을 연기하는 방법이다. 1031 Exchange(교환)은 가장 오래되고 명확한 세금 유예 수단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하고 세법상 명확히 허용된 구조라는 점이다.

즉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유예되고 실질 부동산 투자자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다.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다. 우선 반드시 소위 말하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45일 식별, 180일 클로징이라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다.

즉, 1031은 세금 유예는 완벽하지만 운용 유연성이 극도로 제한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팔면 바로 다시 사야 한다'는 강박 같은 규칙이 항상 뒤따른다.

▶Delaware Statutory Trust

1031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수동형 부동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Delaware Statutory Trust(이하 'DST-Delaware')는 1031 교환이 진화한 형태로 IRS가 2004년에 공식적으로 승인한 구조다. 투자자는 직접 부

1031, 팔고 다시 사는 사람을 위한 구조 델라웨어 DST, 팔고 쉬고 싶은 사람에 유리 DST는 팔고 자산 계속 재투자 할 경우 필요

산을 사는 대신 DST가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beneficial interest)'을 구매한다.

즉, 1031 교환으로 얻은 자금이 DST-Delaware에 들어가고 DST가 대신 부동산을 소유, 운용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임대수익을 배분받고 나중에 매각 시점에 세금을 인식한다.

장점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완전히 수동형 투자인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1031 교환으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세금 유예를 유지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러 명의 투자자에게 분할되어 접근성이 높고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주상복합 아파트나 물류센터 등 대형 자산에 참여를 가능하게 해준다.

반면 여전히 1031 규칙(45일/180일)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중도 매각이 어렵다는 점 등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경

우가 많다. DST-Delaware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펀드'로 볼 수 있어 내부 수익률이나 부동산 매각 타이밍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DST-Delaware는 1031 교환의 '자동 운전 버전(auto-pilot)'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직접 부동산을 사고파는 피로를 덜고 싶을 때 전문 부동산 매니저가 운영하는 DST 구조에 참여하면서 같은 세금 유예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동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eferred Sales Trust

팔았지만 아직 돈을 안 받은 것으로 본다는 컨셉에 기초한 것이 이 방법이다. Deferred Sales Trust(이하 'DST-Deferred')는 1031처럼 특정 자산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세금 유예가 가능한 구조다.

법적 근거는 세법상 매각대금의 분할 상환에 관한 규정이다. 어떤 자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나누어 받을 경우 나누어 받은 만큼만 그 해에 세금을 낸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DST는 '중간 신탁(intermediary trust)' 역할을 한다. 매도자는 부동산, 사업, 주식, 크립토, 어떤 자산이든 DST에 판매하고 DST는 매도자에게 'Promissory Note(약속 어음)'를 발행한다. 이후 DST가 자산을 제3자에게 팔고 매도자는 DST로부터 Note 지급 일정에 따라 대금을 분할 상환받고 그때마다 세금을 분할 인식하는 방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부동산 외 사업체, 주식, 크립토,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투자 대상도 그만큼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세금 유예와 함께 재투자 유연성, 그리고 자산보호 효과도 갖게 된다. 트러스트 내부에서 세전 상태를 유지하며 자산운용을 통해 복리 증식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상당한 매력을 갖는다. 이런 자산운용을 통해 은퇴 소득·상속·보험 전략으로 확장 가능하다.

단점은 IRS가 직접 관리하는 1031에 비해 법리 기반 구조가 정확히 만들어

아침을 부르는 소리~

중앙일보와 함께 상쾌한 하루를 보내세요~~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8110 Swains Pond Springs	COMING SOON	\$625,000	방 3, 화2+2, Main Level 풀필 좋은 마루, 1~2층 데크, Cul-de-Sac 으로 어린이들이 놀기에 안전. 데크 뒤로 숲 View, 그 숲 안에 산책로 있음. 10/11/2025, 11:00~4:00 PM 오픈하우스, 10/9 마켓에 올라올 예정
1477 Hampton McLean, VA	UNDER CONTRACT	\$1.3M	복수 오피스 빌딩 전용 오피스 빌딩으로 결정. 마켓에 올린 후 4일 안에 계약 완료, 10/24 세팅먼트 예정
6501 Divine St, McLean, VA	SALE	\$2.85M	Focal Point Homes 빌다가 지은 4년 된 집. 주인의 사랑과 잘 관리된 집. 방 7, 화 6.5, 정전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16309 Sandy Ridge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8220 Crestwo McLean, VA	UNDER CONTRACT	\$1,225,000	마켓에 올라오자마자 3일 안에 계약 완료.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위 1477 Hampton Hill 셀러가 소개, 10/14일 세팅먼트 예정
2726 Gallows Rd, Vienna, VA	SOLD	\$279,900	오픈하우스 때 온 손님을 바이어로 만들, 셀러/바이어 So Happy, 계약 후 2 주 안에 세팅먼트 완료, 9/30 세팅먼트 완료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거울/바넌 볼에 파던 나을 주택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주인 환영	10월~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5,500 가격대 렌트
7608 Lee Landing Dr, Falls Church, VA	1+1년	\$2,600 가격 넘치는 세입자 연결
2901 Gettysburg Sq, Vienna, VA	2년	주재원, 지난 6년간 세입자도 로리 손님. 이번에도 마켓에 내 놓지 않고 바로 연결 + 렌트 완료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주재원, 공방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주재원, 공방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주재원, 공방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주인측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람이랑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erville, VA	3년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관심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속근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중국, 온라인 포교에 칼 겨눴다

해외의 종교 활동 참가 금지
인가 단계만 설교·교육 가능
'종교=사회불안'으로 보는 듯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온라인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공간에서 종교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강령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성직자가 온라인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지되는 활동에는 자기 홍보와 해외 종교 세력과의 연계, 극단주의 사상 확산, 사이버 종교·미신 활동 조장, 종교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등이 포함됐다.

강령은 2022년 종교 당국이 온라인 종교 정보 전파에 대해 허가제 도입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온라인 종교 활동 전반을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규정에 따르면 성직자는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종교 단체·기관·사원이 설립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을 통해서만 온라인 설교나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전하거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성직자 자격증을 제출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강령은 성직자들에게 "간절한 온라인 습관을 기르고 해로운 온라인 문화



중국이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종교 단체나 기관, 사원만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포럼을 통해 온라인 설교나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에 저항하며 종교 콘텐츠를 자기 홍보나 관심 끌기에 활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불교 승려들이 틱톡(중국판 더우인)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일상 영상과 불교 문화를 공유한 사례가 보도됐는데 이러한 활동은 규

제 대상에 포함된다. 강령은 또 성직자가 해외 단체와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외국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점술 등 미신 행위와 사이버 종교 홍보도 금지 대상이다. 종교 콘텐츠를 이용한 상품 판매나 라이브커머스 등 상업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온라인 종교 활동 주요 금지 사항

- 온라인 설교·종교 교육= 인가받은 종교 단체·기관·사원이 설립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을 통해서만 가능
- 해외 종교= 해외 종교의 침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 하는 행위 금지
- 홍보= 자기 홍보 금지
- 상업 활동= 종교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판매·라이브 커머스 금지
- 온라인 모금= 종교시설 건축 자금 모집 등 금전 추구 금지

종교 증오범죄 급증, 전체 피해의 23.5%

FBI 통계 '올해만 1482건'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적 동기의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FBI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종교적 편견과 관련된 증오범죄는 1만2025건에 달했으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종교 관련 증오범죄가 1482건 발생했다.

지난해 증오범죄의 편견 유형을 보면 인종·민족·혈통이 53.2%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23.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성적 지향(17.2%), 성 정체성(3.9%), 장애(1.3%), 성별(0.9%) 순으로 나타났다.

FBI 통계를 보면 2020년대 들어 증

교 편견에 따른 증오범죄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BI는 정치적 긴장과 국제 분쟁, 사회 갈등이 이런 추세를 가속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무슬림과 유대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급증했다. 미네소타 이슬람관계위원회(CAIR-MN) 제일라니 후세인 사무총장은 "정치적 상황이 폭력, 특히 종교적 기반의 정치 폭력을 촉발하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미니애폴리스 알 히크마 모스크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CAIR-MN은 이번 사건이 종교적 편견에 따른 방화일 가능

2024년 유형별 증오범죄

편견 유형	비율
인종·민족·혈통	53.2%
종교	23.5%
성적 지향	17.2%
성 정체성	3.9%
장애	1.3%
성별	0.9%

성을 수사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후세인은 "최근 연쇄적인 방화 사건을 보면 범인들이 단순히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화재를 의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모스크를 겨냥한 공격 40건 중 16건이 미네소타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최다였다. 가주는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학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도입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은총의 빛과 이성의 빛 구분
대립 아닌 보완의 관계 설정
신학에 철학 종속돼야 주장

토마스는 '탁발수도회(도미니크 수도회)'에 가려고 결심했지만, 그의 형들이 그를 성에 가두고, 그의 계획을 단명시키기 위해서 매춘부를 그에게 보냈으나 장작불로 그들을 물리쳤다고 한다. 그때도 신앙심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중세철학에서 늘 문제가 되던 것은 '철학'과 '신학'의 영역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는 신학에서 나오는 '은총의 빛'과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이성의 빛'을 구분하려 했다. 가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세계 창조, 세상의 모든 법칙과 사실 등은 이성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철학의 대상이나, 삼위일체설, 육화, 신자현신(神子現身), 최후의 심판 같은 초자연적 진리는 은총의 빛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 간의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토마스는 보았다. 그러나 끝내, 한쪽을 선택한다면, 마땅히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철학이 신학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철학이 신을 인식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중세까지만이고, 데카르트 시대 이후는 인간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게 된다. 계몽주의와 실증적 과학주의 그리고 실존주의가 이것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문제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토마스는 신의 존재를 다섯 가지 방식으로 논증했다.

첫째, 운동이다. 이 세계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우리의 감각적 경험도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어떤 부동(不動)의 원동자(原動者), 즉, 제1원동자가 존재하며, 이것을 신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둘째, 운동의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동력인(動力因)에서 찾았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原因)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제1동력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신이라 했다. 셋째, 이 세상에 우연한 사물에서 필연적인 존재로 가는 과정에서 찾았다. 만일 필연적인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필연적인 존재가 신이라는 것이다. 넷째, 모든 개별적인 존재마다 지닌 완전성을 향한 단계적 구조에서 찾았다.

가령, 진선미를 모두 갖춘 최고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방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자연 세계의 '합목적성 구조'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한다. 가령, 작은 생명체나 심지어 생명이 없는 자연적 물체(우주 전체의 움직임, 물, 공기의 작용 등)마저도,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에게 일정한 목표로 나아가게끔 조종하는 어떤 지적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신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하는 생물·무생물을 조종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는 오직 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마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른 방식은 인정하지 않았다.

토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 또는 사회적 존재로 여겼다. 토마스는 국가의 정치체제를 군주제, 귀족제, 민주주의제로 구분했으며, 이것이 변질하여 전제정치, 과두정치, 무민정치가 등장했다고 본다. 여기서 군주정치를 가장 바람직한 국가형태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일은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니라 사제와 로마 교황이 이끄는 교회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결국, 모든 왕은 교회의 영도자인 교황에게 복종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토미즘(Thomism)'으로 도미니크 수도회의 철학으로 인정받았고, 1322년에 토마스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1879년에 이 토미즘은 전체 가톨릭(기독교)교회의 공인된 철학으로 격상되고, 1931년에 교황청의 지시로 모든 철학과 사변신학은 토마스의 학설에 따라서 강의 되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생기게 된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바이어 희소식 ~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펙션, 래드 인스펙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화1 \$1600
\$1,600

급매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 1+ 아담한 뒷마당
챠털리 as is 급매
\$300,000 (임대 \$1,8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이야기



렉스 유 New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

클로징 비용

환경 평가비·대출 수수료는 구매자 몫
중계 수수료·양도세 등은 판매자 책임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계약과 에스크로 지시서에 정한 대로, 그리고 협상한 대로 나누어 냅니다. 오늘은 구매자와 판매자 각각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매자 쪽입니다. 대출을 이용한다면 감정평가비, 환경평가비(커머셜의 경우), 대출 수수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포인트도 구매자 몫입니다. 서류 공증비와 등기 기록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보통 소유권이전 등기 기록에 75달러가 들어갑니다.

세금·보험 적립금도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맞춰 놓기 위해 에스크로 계정을 열고, 클로징 시점부터 월말까지 필요액을 예치합니다. 주택 보험(필요 시 홍수보험 포함)은 보통 1년치를 선납합니다. 반대로, 셀러가 미납한 재산세가 있으면 셀러에게 차감되고 구매자는 그만큼 크레딧을 받습니다.

타이틀과 에스크로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요? 관행상 구매자는 대출기관을 위한 대출용 타이틀 보험(Lender's policy), 판매자는 소유자용 타이틀 보험(Owner's policy)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수수료와 HOA 소유권 이전 수수료는 지역 관행이

있지만 협상 대상입니다. 콘도의 공용부 유지비는 사용일자 기준으로 정산하며, 휴 위 런티는 계약서에 지정된 쪽이 지급합니다.

최근 자주 질문받는 부분이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입니다. 셀러가 지급을 거부한 경우, 구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에이전트 계약서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판매자입니다. 가장 큰 비용은 중계 수수료입니다. 리스팅 계약서에 약정된 비율로, 보통 판매자가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양도세(Documentary Transfer Tax)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500달러당 0.55달러이며, 도시나 카운티에 따라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A 시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일명 ‘맨션 택스(Measure ULA)’가 적용되며, 500만 달러 이상 거래 시 4%, 1천만 달러 이상은 5.5%의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용용·주거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므로 투자자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콘도·코옹의 관리비를 클로징 전까지 모두 정리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후 클로징 3영업일 전에 제공되는 Closing Disclosure로 최종 수치를 대조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HOA, 유틸리티도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정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이야기



케니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

셀러의 의무-주택 관련 정보 공개

핵심 정보 누락하면 소송 당할 수도
양심·책임에 근거해 성실히 전해야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Disclosure 서류이다.

Disclosure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숨김 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들을 “Material Fact” 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Disclosure 중에 대표적인 것이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인데 반드시 집 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Easton vs. Strassburger 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다. 당시 Easton이 1에이커 대지의 3000 SF 건평인 집을 Strassburger로부터 \$17만에 구입을 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foundation이 뒤집히고 공사비만 \$20만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Land Slide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던 것이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

적이었던 것은 셀러/바이어를 Represent 했던 Broker 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 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Visual Inspection 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TDS 서류는 1-4 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Probate 매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 될 수 없다.

만약 셀러가 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캔슬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 High Fire Zone에 위치한 집을 매매할 경우 지붕이나 처마의 산불 대비 재질 사용 유무 등도 알려주어야 하며 그 밖에도 집 주변의 자연재해 관련 Natural Hazard Disclosure,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 성분 페인트 사용 여부, 증축된 부분의 허가 유무, 최근 5년 내에 보험 청구를 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되어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주식은 위험 감수, 채권은 안전 선호 성향을 대표하는 투자상품이다. 채권은 오랫동안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인식처였다. 확정적인 이자수익과 원금보전은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할 때 세계 헤택이 적용되고, 표면이자율(채권에 표시된 이자율)이 낮아수록 실제 효과가 커져 장기보유가 적절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낮추자 장기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채권으로도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이어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치솟자, 각국은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 채권의 투자 매력은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다.

국내 공모 채권시장은 코로나19 이전 1826조원

양원택의 마켓 나우

채권의 반전, 안전 자산에서 전략 자산으로

에서 현재 2724조원으로 50% 급증했다. 개인 투자액도 10조원에서 52조원으로 급증했다. 채권은 더는 보수적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리 변동을 활용해 수익을 노리는 적극적 투자자들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

해외 채권 열풍도 거세다. 2024년부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인하 속도가 느린 미국 덕분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적극적 투자자들은 이자수익과 시세

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노리며 채권을 글로벌 경제에 베풀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채권시장은 ‘무채색 공간’에서 다양한 전략이 펼쳐지는 역동적 시장으로 변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0~4.25%로 낮췄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본은 가장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채권시장이 미래를 선반영한



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초저금리였던 일본 채권은 이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매력적 상품으로 탈바꿈했다.

채권 투자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수적인 투자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과 환차익까지 노리는 적극적인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위험도 따른다. 채권시장의 가격 변동 폭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특성이 약해질 수 있다. 앞으로 채권시장은 안전한 투자와 위험한 투자의 경계에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특히 환율 급변, 해외 경기 침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등은 채권을 고위험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위험 관리와 분산 투자를 통해 균형 잡힌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

DC건물 | NNN | 창고 | 샵핑센터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최상의 조건으로 팔어드립니다!

Why US?

- 미국 3대 상업용 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 의 업무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 바이어 / 브러커 Data Base 보유
 - Offering Memorandum, YouTube 제작
 - CoStar, LoopNet Premium 리스팅 광고
- 건물주의 이익과 직결되는 NATIONAL 테넌트를 찾아드립니다.

- 상업용 부동산 리스팅 전문업체 CoStar가 선정한 TOP POWER BROKER, 팀 플레이를 통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DC건물 테넌트와 TOPA (Tenant Opportunity to Purchase Act) 거래 전문,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조건으로 팔어드립니다.
-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프렌차이즈, 도매, 호텔, 카와시, 코인런드리, 리커 비즈니스 / 건물 매매 케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 FULL SERVICE FOR REDUCED FEES! 브로커에게 주는 커미션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샵핑센터 \$2.6M

VA CAP 7.25%
NOI 연인컴 \$185K
5테넌트, 땅 1.4에이커



DC 건물 \$1.6M

Supermarket 건물
Beer & Wine License
3유닛, 5,900 SF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신!

• CoStar 선정 TOP POWER BROKER
• Broker Licensed DC, VA, MD
• Marcus & Millichap 근무경력 / NNN Investment
• Shopping Center 투자 / Property Management 경력
• ICSC Member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703-395-3123





강원도 하반기 특판전 GANGWON PROVINCE SALE EVENT

OCT. 10TH - OCT. 23RD, 2025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가진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제품들을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Specials from the peaceful mountains of the Gangwon Province. Experience the finest of Gangwon Province with our exclusive product showcase.



GOLDENWIND Hwangtae Yangnyeom Gui

금빛바람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6.35 OZ

~~\$11.99~~
\$ 8.99



Shiitake Mushroom
양양 생표고버섯
2.2 LB/BOX
~~\$31.99~~
\$ 21.99

CHUNGHAE S & D Premium Roasted Seaweed
청해에스엔디 해초사랑 도시락김 선물세트
0.1 OZ X 27 EA/PKG
~~\$17.99~~
\$ 11.99



Steamed Glutinous Corn

강원도 7번국도 찰옥수수
10.58 OZ
~~\$6.99~~
\$ 4.99



HAEMOUN Raw Soybean Pulp

해모운 홍천콩 생비지
5.29 OZ
~~\$3.49~~
\$ 2.49



GOLDENWIND Dried Pollock Flavored Soup

금빛바람 용대리 황태진국
1.1 LB
~~\$5.99~~
\$ 3.99



ODAESAN FOOD Korean Boiled Pork Herb Tebag

오대산식품 수육 재료 티백
4.23 OZ
~~\$6.99~~
\$ 4.99



Korean Traditional Sikhye Drink

철원 오대쌀 식혜
1.5 L
~~\$8.99~~
\$ 5.99



Korean Traditional Buckwheat Sikhye Drink

봉평 메밀 냉 식혜
1.5 L
~~\$8.99~~
\$ 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Would you drop it?; 이제 그만 좀 할래?

(David whose girlfriend just ended their relationship is talking to his friend Matthew about it...)

(여자친구에게 이별선고를 받은 데이빗이 친구인 매튜에게 이 일을 이야기한다...)

David: I came home and everything was gone.
데이빗: 집에 왔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Matthew: She took everything?
매튜: 여자친구가 다 가져간 거야?
David: Everything. She cleaned out the house. It's empty.
데이빗: 전부 다. 집에 있는 걸 몽땅 가져갔어. 집이 텅 비었어.
Matthew: These things happen.

매튜: 누구나 겪는 일이야.
David: What do you mean?
데이빗: 무슨 말을 하는 거야?
Matthew: People fall in love and people fall out of love. It happens every day.
매튜: 사람들은 말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에 냉담해 지기도 해.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David: But I loved her. I gave her everything she wanted. How could she just leave?

데이빗: 하지만 난 사랑했던 말이야.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어떻게 날 떠날 수 있어?
Matthew: Things change David. Nothing stays the same. Learn from this.
매튜: 데이빗 세상 일은 다 변해. 그대로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 이번 일로 배워 뒤.

"I'm going to clean out my closet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옷장을 싹 치울 거야.)
▶ These things happen: 누구나 겪는 일이야.
Jim: "My daughter is leaving home and getting her own apartment." (짐: 딸애가 집을 떠나 아파트를 얻어 나간대.)
Roger: "She's not a little girl anymore. These things happen." (라저: 자네 딸도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누구나 이런 일을 겪어.)

기억할만한 표현
▶ clean out (something): 싹 치우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열쇠

(1)남자가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일 (3)한 살 터울로 낳은 아이 (5)일꾼을 직접 감독하는 우두머리 (7)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지□ (8)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 (9)방을 덥히려고 아궁이에 때는 불 (10)얼부풀어 더덕처럼 마른 북어. 명태를 매서운 겨울철 눈보라와 청정한 불바람 속에서 말리죠 (11)건강하고 씩씩한 사나이. 사내 ~라면 처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13)잠을 자지 않고 밤을 보냄. ~ 기도 (14)생물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쇠하여지는 일. 처림새가 초라하고 지저분한 것. ~이 들다 (15)잇을 손으로 건드리면 아내 으르러들면서 아래로 처진다 (17)언니의 남편 (18)꿋꿋한 안쪽에 있는 막. 공기의 진동을 속귀 쪽으로 전달하여 준다 (20)뒷걸음질하는 걸음. 호통 소리에 놀란 아이는 ~으로 방을 나가려고 했다 (21)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음.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 □수□□ (23)일할 사람을 구함 (24)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 (25)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세로열쇠

(1)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춤 (2)가시나무의 넝쿨이 여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비록 ~ 속일지라도/우리 기쁜 사람이라면/이겨낼 수 있으니/그래 사람이야/사람이 꽃이고 양식이야(노유섭). □□□□ (3)지나날 석탄으로 만든 이것으로 난방도 하고 밥도 지었죠 (4)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5)소장 가운데 위의 유문에 이어지는 부분. 길이가 손가락 12개를 옆으로 늘어놓은 정도라는 데서 붙은 이름이다. □□지□ (6)아내의 아버지 (9)군대의 양식으로 쓰는 쌀 (10)버려두어 거친 들판 (11)곡을 담는 데 쓰는 그릇 (12)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 놓은 곳 (13)쇠로 만든 가는 줄 (14)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 (16)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음.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일을 힘써 피하여야 함. ~이요. 성사재천이라. □사□□ (18)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짓 (19)걸음을 배울 때 발을 떼어놓는 걸음걸이 (20)장롱·책장·탁자 따위 (21)임금에게 올리는 밤 (22)대변을 보게 하려고 약물을 향문으로 넣어서 직장이 나 대장에 들어가게 하는 일

스도쿠

	8	7	5	6				
				7		6	3	
	6			4				
4	9	6	3			7	2	
	7		8		4			9
	5		6	9		4		
			7		2	9		6
7		9		3	6			
		2	9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2	5	8	9	3	4	6	1	7
9	7	6	2	1	7	5	3	8
3	1	4	7	6	9	8	5	2
6	9	5	4	2	8	1	7	3
8	2	7	1	5	3	9	6	4
7	8	1	6	4	2	3	9	5
5	3	9	8	7	1	4	2	6
4	6	2	3	9	5	7	8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10월
구
인
광
고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수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기사(오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토요 핸디맨 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
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 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타임)
410-961-3012

파라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날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엘리콧시티 세탁소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풀 & 파트타임,
배킹만 하실분도 구합니다.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스시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콧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주방방
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2층 욕실 딸린 큰방,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장3.5, 10월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중방 렌트, 즉시 입
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호버 이중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사업체 매매

확실한 순익 보장 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 (6am-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케어피플 홈헬스 (센터빌)
Accounting / Bookkeeping (FT 유경험자)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 and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턴후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홀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홀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파라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트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력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트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중앙일보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집합니다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리 샵에서 바느질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티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소터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 우대, DC 전철역 옆
240-644-4190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구인

토요 핸디맨 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19개월 남자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티임)
410-961-3012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GMU 대학 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트
합니다. (웃슨 하이스쿨 학군)
방4, 화2.5, 차고2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 \$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드된 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 (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3,000
로빈슨 하이스쿨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11/5일부터 입주 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욕,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
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
이함, 굿 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벨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100
방2, 화장실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탁트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
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1, 엔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 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로튼 (스프링필드) 조용한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703-478-452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 이 만나
는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편리, 주차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
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 방 렌
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교양이 관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분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아웃/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웨스트 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합니다.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첼틸리 급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 벽돌 타운 하우스 \$589,000
방3, 화2.5, 차고 1 HMART 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우드 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703-813-8949

도미니언 엘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럭셔리
리 싱글 \$1,699,000
1 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3차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
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
우드 바닥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
못, 분소, 욕, 음향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
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4, 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4, 화3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 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5. 엘리컷시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
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페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우순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방6, 화장실6, 차고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페어팩스타운홀 \$850,000
방4, 화장실3+1, 차고2, 앤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마루
2.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역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홀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페어팩스 싱글홀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페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홀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찬틀리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5. 찬틀리 콘도 새 빌더홈 (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셔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확실한 순익 보장 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는 건물, 주 5일 (6am - 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효과.
관심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샵용 사업체 매매 (레스톤 /헨트 지역)
-\$100,000
-현직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 매매 / 기타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싱흠,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703-899-8999/410-417-7080

색스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 된 인어공주, 자수정 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서 상태 좋음, 필요하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 합니다. (면대면 및 중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분사 전문인들이 직접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움니화재사 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 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703-910-0400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양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차,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 · 기술력과 서비스 · 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펌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0월 가을맞이 Special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단 하나의 하이엔드 헬스케어 로봇

NEW 파라오 Q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Bang & Olufsen 음향기술 탑재

고급 천연 가죽 시트

10인치 터치 태블릿 리모컨

XD-PRO 마사지 모듈

천주 라인 마사지

HIGH-TECH ROBOTICS TECHNOLOGY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컴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팔콘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월릿 우드 패턴' 디자인!

첫 발을 뗀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PHANTOM ROVO



바디프랜드만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재미!

Medical PHANTOM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된다!

- *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 * 퇴행성 협착증 치료를 위한 견인!



이런 분들께 팬텀 메디컬 케어를 추천합니다!

- 목과 허리 근육통 완화를 원하시는 분
- 목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거나 공부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 거치대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깔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프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완전히 판매중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 건강을 채우고 피톤치를 흡수~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IBERTY UNIVERSITY & MIT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 교육 후 공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 안정적 수입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반**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가능
-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 **Libert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 **세계 1위 회사(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info@meridianwish.com www.meridianwish.com www.worldpay.com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 Deal

Hotdeal.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르레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텔뤼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특점 Alexandria 콘도

넓은 방2, 화1, 탁 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74,900



특점 Reston 콘도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 리모델링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아메니티가 좋음

\$499,900



특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410,000



특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65,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